

1.

해설

올바른 발음 평가

다음은 잘못된 발음 자료를 수집하여 고치는 탐구 활동의 일부이다. 수정 사항이 올바르게 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발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발음을 고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발음 오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에서 'ㅅ'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슬]' 대신 '[바츨]'로 발음한다.
 → '밭을'의 표준 발음은 '[바틀]'이며 단순히 연음만 하면 된다.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ㅌ' 뒤에 'ㅣ'나 반모음 'y'가 올 때인데 '밭을'은 이것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구개음화를 하면 잘못된 발음이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 'ㅅ'을 단모음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 대신 '[ㅅ:]'로 발음한다.
 → 자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 'ㅅ'은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ㅁ'을 그대로 연음시켜 발음해야 하므로 '[다님]' 대신 '[다뎨]'로 발음한다.
 → '당임'은 '[다뎨]'와 같이 연음시키는 것이 맞다.
- ④ 종성에서는 겹받침이 발음되지 않으므로 '[점 : 따]' 대신 '[점 : 따]'로 발음한다.
 → 국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 발음한다.
- ⑤ 원칙상 긴소리는 단어의 첫음절에만 나타나므로 '[참말 :]' 대신 '[참말]'로 발음한다.
 → 긴소리가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이면 짧게 변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

해설

형태소의 개념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 1>에 따르면, ㄴ에서 자립 형태소는 '하늘, 창', 실질 형태소는 '하늘, 창, 푸르-'이다. 따라서 그 둘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 1>에서 제시한 형태소의 개념에 따라 ㄴ을 분석하면 '나, 는, 오, 늘, 도, 책, 을, 읽-, -었-, -다'가 된다.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② ㄴ에서 '나, 오늘, 책'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으면서 어떤 대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라는 판단은 적절하다.
- ④ 용언의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혼자 쓰일 수는 없고 반드시 어미가 결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읽-'과 '푸르-'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라는 판단은 적절하다.
- ⑤ ㄴ의 '는, 도, 을'과 ㄴ의 '이'는 체언의 뒤에 붙어서만 쓰일 수 있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며, 앞말과 다른 말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만을 나타내 주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

해설

해설

합성어의 음운 현상 파악

다음은 합성어에 대한 수업 자료이다. 제시된 자료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이 문제는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경음화가 조건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된 자료를 볼 때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 관계가 경음화의 적용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합성어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에 따라 경음화의 적용이 달라진다.
 → '물고기'와 '불고기', '산바람'과 '비바람', '겨울비'와 '이슬비'를 비교하면 후행 요소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경음화의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다. '물고기'와 '산바람'처럼 장소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거나 '겨울비'와 같이 시간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경음화가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통해 경음화의 적용에는 합성어를 이루는 요소의 의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⑤는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합성어의 후행 요소가 같으면 동일한 음운 현상이 적용된다.
 → 후행 요소가 같은데도 경음화의 적용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 ② 합성어의 의미는 구성 요소들의 의미를 합친 것과 동일하다.
 → '물고기'의 의미가 '물'과 '고기'의 의미를 합친 것과 차이는 나서 알 수 있듯이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합성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 ③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들 사이의 의미 관계는 항상 일정하다.
 → 제시된 자료를 보면 어근들 사이의 의미 관계는 합성어에 따라 차이가 난다.
- ④ 합성어의 구성 요소에는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포함된다.
 → 제시된 자료에서는 합성어의 구성 요소 중 문법적 의미를 지닌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성어는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는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지므로 그 구성 요소가 문법적 의미를 지닐 수 없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

해설

음운들의 공통점 추론

(가)의 밑줄 친 음운들이 지니는 공통점을 올바르게 지적한 것은?

이 문제는 밑줄 친 자음들이 자음의 분류 기준 중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므로 밑줄 친 자음들이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어떤 특징을 공통으로 지니는지 찾으면 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공기를 막아서 내는 예사소리이다.
 → 'ㄱ, ㄷ, ㅂ'은 조음 위치에서는 각각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으로 아무런 공통점을 지니지 않는다. 이 자음들은 조음 방식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ㄱ, ㄷ, ㅂ'은 모두 특정한 조음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는 파열음들이다. 또한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중에서는 예사소리에 해당한다.
- ② 발음되는 위치가 동일한 예사소리이다.
 → 'ㄱ'은 연구개음, 'ㄷ'은 치조음, 'ㅂ'은 양순음이므로 발음되는 위치가 동일하지 않다.
- ③ 마찰을 일으키며 발음되는 예사소리이다.
 → 'ㄱ, ㄷ, ㅂ'은 파열음이므로 마찰을 일으키며 발음된다고 할 수가 없다.
- ④ 음절 초성에는 쓰이지 못하는 예사소리이다.

해설

→ ‘ㄱ, ㄷ, ㅂ’은 ‘가루, 달, 발’ 등에서 보듯이 음절 초성에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자음들이다.
 ⑤ 모음 없이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예사소리이다.
 → ‘ㄱ, ㄷ, ㅂ’과 같은 자음들은 일반적으로 모음이 없으면 홀로 발음될 수 없다. 자음을 ‘달소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음이 모음과 함께 쓰여야만 한다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힌트

‘ㄱ, ㄷ, ㅂ’은 조음 방식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

해설

음운 현상 파악

(가)와 (나)에 해당하는 예가 올바르게 묶인 것은?

이 문제는 (가)와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운 현상의 예를 잘 찾을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가)와 (나)의 내용을 잘 읽은 후 각각의 설명에 부합하는 예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 비웃 → [비웃], (나) 좋지 → [조 : 치]
 → (가)는 음절 종성에 오지 못하는 자음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비웃’의 ‘ㅍ’이 ‘ㄷ’으로 바뀌는 예가 적절하다. (나)는 ‘ㅎ’과 ‘ㅂ, ㄷ, ㄱ, ㅈ’이 결합하여 거센소리가 되는 현상이므로 ‘좋지’의 ‘ㅎ’과 ‘ㅈ’이 합쳐져 ‘ㅈ’이 되는 ‘좋지’가 올바른 예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 닭도 → [닥또], (나) 낱은 → [나은]
 → ‘닭도’는 음절 종성에 온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과 ‘ㄱ’ 위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적용된 예로서, (가)의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낱은’은 ‘ㅎ’이 ‘ㅂ, ㄷ, ㄱ, ㅈ’과 합쳐져 거센소리가 되는 예가 아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단순히 탈락하는 예이므로 (나)의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② (가) 콩밭 → [콩밭], (나) 앞도 → [압또]
 → ‘콩밭’은 음절 종성에 올 수 없는 ‘ㅍ’이 ‘ㄷ’으로 바뀌었으므로 (가)의 설명과 부합하는 예이다. 그러나 ‘앞도’는 ‘ㅎ’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나)의 설명과는 상관이 없는 예이다.
 ③ (가) 빛이 → [비치], (나) 먹는 → [멍는]
 → ‘빛이’는 선행하는 말의 받침이 연음된 예로서 음운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가)의 설명과는 무관하다. ‘먹는’은 ‘ㄱ’이 ‘ㄴ’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예이므로 역시 (나)의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⑤ (가) 밀이 → [미치], (나) 놓는 → [논는]
 → ‘밀이’는 ‘ㅍ’이 ‘ㄴ’ 앞에서 ‘ㅍ’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의 예이므로 (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놓는’은 ‘ㅎ’이 ‘ㄴ’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로 (나)의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 예이다.

힌트

(가)는 음절의 끝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현상이다. (나)는 인접한 두 자음이 하나의 거센소리로 줄어든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

해설

합성어의 유형 및 종류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협조했다’의 ‘물불’은 결합된 어근 ‘물’과 ‘불’의 의미가 모두 상실된 채 어려움이나 위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용된 융합 합성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것은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논밭’은 명사 간의 결합에 의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르면 ‘뛰놀다’는 ‘뛰어놀다’와 같이 연결 어미를 통해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뛰놀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돌다리’의 ‘돌’은 ‘다리’를 꾸며 주는 말이므로 ‘다리’에 종속된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돌다리’는 종속 합성어이다.
 ⑤ ‘말아먹다’는 ‘말다’와 ‘먹다’가 지닌 본래의 뜻을 상실한 채 ‘재물 따위를 송두리째 날려 버리다.’의 의미로 사용된 융합 합성어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

해설

음운 현상 이해,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손짓
 ‘손짓’은 울림소리 ‘ㄴ’과 안울림소리 ‘ㅈ’의 결합으로, ‘명사(손)’와 ‘명사(짓)’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손짓’은 <보기>에 제시된 ‘된소리되기’와 관련이 없는 사잇소리 현상으로, [손짚]으로 발음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꽃밭
 ‘꽃밭’의 ‘꽃’과 ‘밭’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각각 [꼇]과 [밭]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꼇] + [밭]에서 안울림소리 ‘ㄷ’과 안울림소리 ‘ㅂ’이 결합하여, [꼇뻘]으로 발음된다. 이는 <보기>의 ①을 만족시키므로 ‘된소리되기’라 할 수 있다.
 ② [확인] 삼지
 ‘삼지’의 ‘삼’은 동사의 어간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삼]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삼] + [지]는 어간의 끝소리가 ‘ㅁ’이고, 어미의 첫소리가 ‘ㅈ’이므로, [삼찌]로 발음된다. 이는 <보기>의 ②를 만족시키므로 ‘된소리되기’라 할 수 있다.
 ③ [확인] 안고
 ‘안고’의 ‘안’은 동사의 어간이다. [안] + [고]는 어간의 끝소리가 ‘ㄴ’이고, 어미의 첫소리가 ‘ㄱ’이므로, [안꼬]로 발음된다. 이는 <보기>의 ②를 만족시키므로 ‘된소리되기’라 할 수 있다.
 ④ [확인] 국밥
 ‘국밥’의 ‘국’과 ‘밥’은 명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각각 [국] + [밥]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국] + [밥]에서 안울림소리 ‘ㄱ’과 안울림소리 ‘ㅂ’이 결합하여 [국뻘]으로 발음된다. 이는 <보기>의 ①을 만족시키므로 ‘된소리되기’라 할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

해설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분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해설

'스며들다'는 '스미다'의 어간인 '스미-'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들다'라는 용언이 결합한 것이다. 이는 용언의 연결형 다음에 용언이 결합한 것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척척'은 부사이고, '박사'는 명사이다. '척척박사'는 '부사+명사' 구성을 보이는데, '척척'이라는 부사는 일반적으로 용언을 꾸미므로 이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어이다.

② '덮-'은 '덮다'라는 용언의 어간이고, '밥'은 명사이므로, '덮밥'은 '용언의 어간+명사' 구성을 보인다. 이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어이다.

③ '접-'은 '접다'라는 용언의 어간이고, '칼'은 명사이므로, '접칼'은 '용언의 어간+명사' 구성을 보인다. 이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어이다.

④ '검-'은 '검다'라는 용언의 어간이고, '붉다'는 용언이므로, '검붉다'는 '용언의 어간+용언' 구성을 보인다. 이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어이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나) 국어의 구조

② 단어

㉠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 단어의 구조, 단어 형성법 등을 이해하고, 단어 형성법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오가며'는 '오- + 가- + -며'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어근 + 어근 + 굴절 접사(어미)'의 결합이다. 즉 ㉠은 어근을, ☆는 굴절 접사(어미)를 가리킨다.

'치솟아'는 '치- + 솟- + -아'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파생 접사 + 어근 + 굴절 접사(어미)'의 결합이다. 즉 ◇는 파생 접사를 가리킨다.

'잡히다'는 '잡- + -히- + -다'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어근 + 파생 접사 + 굴절 접사(어미)'의 결합이다. 즉 '-히-'는 파생 접사이며 ◇로 기호화된다.

'되살리고'는 '되- + 살- + -리- + -고'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파생 접사 + 어근 + 파생 접사 + 굴절 접사(어미)'의 결합이며, 이를 주어진 기호로 나타내면 '◇+㉠+◇+☆'가 된다.

문항코드 : 3-087-067

10.

해설

파생어의 구조 분석과 이해

'얼리다'는 '얼--+리--+다'로 분석되며 '얼-'이라는 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것이다.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예로는 '낮추다', '높이다' 등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울렸다'는 '울--+리--+있--+다'로 분석되어 자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를 붙인 예로 볼 수 있다.

해설

② '말겼다'는 '말--+기--+있--+다'로 분석되어 타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를 붙인 예로 볼 수 있다.

④ '채우고'는 '채--+이--+우--+고'로 분석되어 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를 두 번 붙인 예로 볼 수 있다.

⑤ '잡게 했다'는 '잡--+게'와 '하--+있--+다'로 분석되어 동사 어근에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동사를 붙인 예로 볼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

해설

형태소의 의미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 내겠다.'에서 '-겠-'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낸다.

③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④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⑤ 해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낸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나) 국어의 구조

③ 문장

㉠ 국어 문법 범주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 방법을 설명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2.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요'는 한글 맞춤법 제17항에서 언급된 것처럼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이다. 즉 ㉠은 '아니-(어간) + -지(종결 어미)'에 조사 '요'가 덧붙은 것이다. 우리말에서 '요'는 종결 어미가 될 수 없으며, 종결 어미는 '-오'이다. ㉡은 '아니-(어간) + -요(연결 어미)'의 구조이다. 따라서 ㉠의 진술은 잘못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아니-(어간) + -지(종결 어미) + 요(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의 구조이다.

③ 한글 맞춤법 제15항의 [붙임 3]을 참조하면 ㉡의 '아니요'는 '아니-(어간) + -요(연결 어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15항의 [붙임 2]를 통해 ㉡은 '아니-(어간) + -오(종결 어미)'로 분석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과 ㉠의 어간은 모두 '아니-'이다.

④ 표준 발음법 제22항의 [붙임]에 따르면 '아니오'는 [아니오]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니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⑤ ㉡은 '아니-(어간) + -오(종결 어미)'인데, 한글 맞춤법 제15항의 [붙임 2]를 통해 이때의 '-오'가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3.

해설

음절 끝소리 규칙의 쓰임 분석

[정답이 정답인 이유]

‘못이’는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서 연음되어 [모시]로 발음되므로 <보기>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발음해야 할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보기>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하면,

①의 ‘꽃’은 [꼇]으로 발음되며, ②의 ‘뒹다’는 [뒹따]로 발음된다. 또 ④의 ‘부엌’은 [부엌]으로 발음되며, ⑤의 ‘술 위’는 [술위] → [소위]로 발음된다. 따라서 ①, ②, ④, ⑤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발음해야 할 사례에 해당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4.

해설

비분절 음운 개념의 이해 및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거짓말’은 ‘거짓[거 : 질]’과 ‘말[말 :]’이 결합된 말이라고 했다. 그런데 장음이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거짓말’에서 장음은 ‘[거 : 질]’에만 남아 있고 ‘[말 :]’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음과 모음은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즉 하나씩 따로 분리해 낼 수 있는 소리이므로, 비분절 음운이 아니라 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② <보기>에서 장단은 모음을 통해 실현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눈[눈]’에서 길게 발음해야 하는 것은 중성의 ‘ㄴ’이 아니라 중성의 ‘ㄷ’임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눈이 안 보여”라는 말을 할 때 억양과 장단이 동시에 사용될 수 없는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눈[眼]이 안 보여”인지 “눈[눈]이 안 보여”인지에 따라 ‘눈’이란 단어의 발음에서 장단이 달라지고, 문장의 끝을 올리는지 내리는지에 따라 발화의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④ “혼자 살아”를, 끝을 올리는 억양으로 말하면 의문문이 된다. 그러므로 명령이 아니라 의문이나 확인의 의미에 가깝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5.

해설

음운과 표기의 관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소리대로 적는 것, 즉 표음적 표기는 음소 문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려 글을 쓰는 사람에게 편리한 표기 방식이다. 또 어법대로 적는 것, 즉 표의적 표기는 글을 읽는 사람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표기 방식이다. 따라서 ‘굴이’와 ‘칼을’과 같이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것은 표의적 표기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는 말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때 편리한 사람을 의미한다. ‘글을 쓰는 사람’의 경우,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쓰면, 일일이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 ㉡에는 어법에 맞도록 표기할 때 유리한 사람이

해설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다는 것은 곧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것으로서, 이러한 표의적 표기 방식은 곧 읽는 사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글을 읽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굴이’와 ‘칼을’은 어법대로 적은 예로서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것이므로 표의적 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6.

해설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확인 1] ㄹ에 쓰인 접사 파악하기

ㄹ의 문장에 쓰인 ‘높이다’의 ‘-이-’는 어근 ‘높’ 뒤에 붙어 파생어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확인 2] 접사의 기능 파악하기

‘높이다’의 ‘-이-’는 어근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할 뿐만 아니라 ‘거실의 온도가 높다.’ → ‘동생이 거실의 온도를 높였다.’처럼 문장의 구조까지 바꾼다. 또한 ‘높다’라는 형용사를 동사인 ‘높이다’로 바꾸므로 품사는 바꾸지 못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확인] 접사 ‘강-’의 기능 파악하기

ㄱ의 ‘강추위’에는 ‘강-’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추위’라는 단어에 ‘매우 센’이라는 의미를 더해 줌으로써 본래의 단어에 ‘추위’의 정도를 강화시켜 주었다.

②[확인] 접사 ‘-개’의 기능 파악하기

ㄴ의 ‘뒹개’는 ‘뒹다’라는 동사의 어근 ‘뒹’에 ‘-개’라는 접미사가 붙어 명사로 파생된 단어이다. 따라서 접미사 ‘-개’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주었으므로 품사를 달라지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확인] 접사 ‘-쟁이’의 기능 파악하기

ㄷ의 ‘겁쟁이’에 붙은 ‘-쟁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하지만 ‘겁’이라는 명사에 접미사 ‘-쟁이’가 붙어 파생된 ‘겁쟁이’도 여전히 명사이다. 따라서 ‘겁쟁이’에 붙은 ‘-쟁이’는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

④[확인] 접사 ‘-히-’의 기능 파악하기

ㄹ의 ‘읽히다’에 붙은 접미사 ‘-히-’는 어근 ‘읽’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해 주고 있다. 또 ‘동생이 책을 읽었다.’ → ‘어머니는 동생에게 책을 읽혔다.’처럼 문장의 구조까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7.

해설

음운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운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므로, 초성, 중성, 종성 중의 어디에 위치하든 그 음운을 다른 음운으로 바꿈에 따라 그 음운이 포함된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발’의 초성을 ‘ㄷ’이나 ‘ㅅ’으로 바꾸거나, ‘발’의 중성을 ‘ㅊ’나 ‘ㄱ’으로 바꾸거나, ‘발’의 종성을 ‘ㅂ’이나 ‘ㅇ’으로 바꾸면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비분절 음운인 음장(音長) 역시 그 길이의 길고 짧음을 통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해설

- ① 음운 중 자음, 모음과 같은 분절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ㄴ)의 비분절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없다. 이는 (ㄴ)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 ③ 음운이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하는 것은 음운의 변동과 관련되는데, 이는 (ㄱ), (ㄴ)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음운의 출현이 위치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ㄱ), (ㄴ)의 활동과도 관련이 없다.
- ⑤ 음운은 음운 교체를 통해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ㄱ), (ㄴ)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8.

해설

음운 변동의 사례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두 음운 중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은 '탈락'이다. ⑤의 경우 'ㄷ'와 'ㄷ'가 만나서 'ㄷ'로 된 것은 한 음운('ㄷ')이 없어진 것이므로 탈락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인 'ㅋ'이 된 것이다.
- ② 'ㅎ'과 'ㄷ'이 만나 거센소리인 'ㅌ'이 된 것이다.
- ③ 'ㄱ'과 'ㄷ'이 만나 이중 모음인 '꺨'가 된 것이다.
- ④ 'ㄷ'과 'ㄷ'이 만나 이중 모음인 'ㄷ'가 된 것이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나) 국어의 구조

① 음운

㉠ 국어의 음운 체계, 음운 규칙과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9.

해설

[정답찾기]

'발'의 경우,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뜻이 다른 여러 단어들 만들 수 있다. (ㄱ)의 경우처럼, '발'의 초성 'ㅂ'을 'ㄷ, ㅅ'으로 바꾸면 '달, 살'과 같은 전혀 다른 단어가 되는 것이다. 소리의 장단(長短)과 같은 비분절 음운 역시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다.

[유형분석노트]

문제 유형 파악	이 문항은 <언어의 본질·음운의 이해와 탐구> 유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음운의 특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즉, 일상적인 국어 생활 자료를 귀납적으로 탐구하여 '음운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

담화 분석 활동	(ㄱ)은 분절 음운과 관련된 자료로, 같은 환경에서 하나의 음운이 달라짐으로써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ㄴ)은 비분절 음운과 관련된 자료로, 소리의 장단을 통해서도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	--

해설

유형 해결 전략

- (ㄱ), (ㄴ)에 나타난 음운의 특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두 자료를 통해 공통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음운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
- ① 음운 중 자음, 모음과 같은 분절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ㄴ)의 비분절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없다.
 - ③ 음운이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하는 것은 음운의 변동과 관련되는데, 이는 (ㄱ), (ㄴ)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음운의 출현이 위치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ㄱ), (ㄴ)의 활동과도 관련이 없다.
 - ⑤ 음운은 음운 교체를 통해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ㄱ), (ㄴ)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0.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잇히다'를 [이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ㅂ, ㄷ, ㅈ, ㄱ'과 'ㅎ'이 서로 만나면 'ㅍ, ㅌ, ㅊ, ㅋ'으로, 두 음운을 합쳐서 발음하는 음운의 축약과 관련된다. 따라서 구개음화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활용하여 답을 할 필요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붙인다'의 표준 발음은 [부친다]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받침 'ㄷ'이 접미사 '-이-'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 ③ '같이'는 [가티]가 아닌 [가치]로 발음해야 하며, 이는 받침 'ㄷ'이 접미사 '-이-'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 ④ 앞의 '발이랑'은 [반니랑]으로, 뒤의 '발이랑'은 [바치랑]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앞의 '발이랑'은 '발+이랑(명사, 실질 형태소)'의 구조로 구개음화의 조건이 아닌 반면, 뒤의 '발이랑'은 '발+이랑(조사)'의 구조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 ⑤ '발을'은 구개음화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연음하여 [바를]로 발음하지만, '발이'는 구개음화의 조건이기 때문에 [바치]로 발음해야 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1.

해설

단어의 형성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싸움쟁이'는 동사 어간 '싸우-'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ㅁ'이 더해져 '싸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쟁이'가 더해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잠귀'는 동사 어간 '자-'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ㅁ'이 더해져 '잠'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명사인 '귀'가 더해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 ② '욕심꾸러기'는 명사 '욕심'에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꾸러기'가 더해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 ③ '물음표'는 동사 어간 '물-'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더해져 '물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표지'를 나타내는 명사 '표(標)'가 붙어 만들어

해설

진 단어이다.

④ '볶음밥'은 동사 어간 '볶-'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더해져 '볶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쌀, 보리 따위의 곡식을 씻어서 솥 따위의 용기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 날알이 풀어지지 않고 물기가 잦아들게 끓여 익힌 음식'을 나타내는 명사 '밥'이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앞 / (나) 국어의 구조 / ② 단어

㉠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 단어의 구조, 단어 형성법 등을 이해하고, 단어 형성법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한다.

문법 II

(1) 국어와 규범 / (나) 올바른 단어 사용

①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2.

해설

음운 현상 이해, 적용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1] 음운 변동 현상의 실제

실제 언어생활에서 표기법과 발음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 2] 음운 변동 현상의 갈래

그 음운 자체에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대표적이다. ㉠의 '암탉[암탁]'이나 ㉡의 '꽃[꼐]'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경우는 'ㄴ'음 첨가 현상인 ㉢의 '담요[담 : 뇨]'와 비음화 현상인 ㉣의 '먹는[멍는]', 구개음화 현상인 ㉤의 '굳이[구지]'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3.

해설

용언의 불규칙 활용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치르-+-어'는 '치러'로 모음 'ㅡ'가 탈락되면서 'ㄹ'이 '-어'와 결합되어 '러'가 된 것이다. 용언의 어간에서 'ㅡ'가 탈락하는 것은 규칙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치러'는 규칙 활용이다. '러' 불규칙은 모음 'ㅡ'가 탈락되지 않고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현상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긋-+-어'는 '긋어'로 변화하는데 어간의 'ㅅ'이 탈락된 현상이 나타난다.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의 'ㅅ'이 탈락하는 현상은 'ㅅ' 불규칙이므로 '긋어'는 용례로 적절하다.

② '깨달-+-아'는 '깨달아'로 변화한다. 이때 어간의 받침 'ㄷ'이 'ㄹ'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의 받침 'ㄷ'이 'ㄹ'로 바뀌는 현상은 'ㄷ' 불규칙이므로 '깨달아'는 용례로 적절하다.

③ '아름답-+-어'는 '아름다워'로 변화한다. '아름다워'는 어간의 받침 'ㅂ'이 어미 '-어' 앞에서 '우'로 바뀐 후, '우'와 '-어'가 결합하여 '워'가 되어 '아름다워'로 적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워'는 'ㅂ' 불규칙이다.

④ '찌르-+-어'는 '찌러'로 변화한다. '찌러'는 어간의 'ㄹ'에서 'ㅡ'가 탈락되고 'ㄹ'이 덧생겨서 '찌ㄹㄹ-+-어'로 변화한 후 결합하여서 '찌러'가

해설

된 것이다. 그러므로 '찢러'는 'ㄹ' 불규칙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4.

해설

선어말 어미의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너 이제 학교에는 다 갔다.'에서 '-았-'은 미래에 일어날 일, 즉 학교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화자가 미리 확신하여 말함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여기서 '-았-'은 말하는 시점(현재)과 사건이 일어난 시점(현재)이 일치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② 여기서 '-았-'은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일어난 일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④ 여기서 '-었-'은 화자가 잊고 있던 일을 새롭게 기억해 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⑤ 여기서 '-었-'은 행위의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5.

해설

단어의 분류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ㄴ. '붓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붙임금, 이자, 껌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라는 의미이고, 뒤의 단어는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라는 의미이다. 두 단어의 의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에 들어갈 수 있다. ㄷ. '갈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뒤의 단어는 '날카롭게 날을 세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다른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두 단어의 의미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단어의 품사는 동사이면서, 각각 '갈고, 갈며, 갈지' 등으로 동일하게 규칙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B]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 '뜨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행동 따위가 느리고 더디다.'를 의미하고, 뒤의 '뜨다'는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르다.'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두 단어의 의미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의 단어는 품사가 형용사인 반면, 뒤의 단어는 품사가 동사이다.

ㄴ. '묻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뒤의 단어는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두 단어의 의미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두 단어의 품사는 모두 동사에 속하지만, 활용을 할 때 다른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앞의 '묻다'는 '묻고, 묻으며, 묻으니'로 규칙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뒤의 '묻다'는 '물고, 물으며, 물으니'로 활용의 형태가 바뀐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앞 / (나) 국어의 구조 / ② 단어

㉠ 단어의 품사 분류를 이해하고 품사 지식이 국어사전에 활용되는 양상을

26.

해설

탐구한다.
문법 II
(1) 국어와 규범 / (나) 올바른 단어 사용
㉠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해설

음운의 변동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날날이'에서 첫 글자인 '날'이 '[날]'으로 발음된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또한 '[날 : 날이]'가 '[날 : 나치]'가 된 것은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날 : 나치]'가 '[난 : 나치]'로 된 것은 'ㄷ'이 'ㄴ'과 만나 'ㄴ'으로 동화된 것이므로 비음화에 해당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7.

해설

축약 현상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음운 변동에서 자음 축약의 경우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ㅋ, ㅌ, ㅊ, ㅌ'이 된다고 하였는데, ㉡의 '줄아도'는 'ㄱ, ㄷ, ㅂ, ㅈ'과 만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축약의 예에 해당되지 않는다. '줄아도'는 [조아도]로 발음되면서 'ㅎ'이 탈락되는 '음운 탈락'에 해당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않던'은 'ㅎ'과 'ㄷ'이 만나 'ㄷ'으로 발음되면서 축약 현상을 보이고 있다.
③ '맞춰'에서 '춰'는 'ㅈ'과 'ㅊ'이 결합하여 'ㅊ'로 축약되고 있다.
④ '그려'에서 '려'는 'ㄹ'과 'ㄷ'이 결합하여 'ㄹ'로 축약되고 있다.
⑤ '와서'에서 '와'는 'ㄱ'과 'ㅈ'이 결합하여 'ㄱ'로 축약되고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8.

해설

음운 변동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음운 변동은 음운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대치,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 등이 있다. 그런데 '봄이 → [보미]'는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나는 연음으로 음운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뒤의 'ㅁ'의 영향을 받았다.
③ 뒤의 'ㄹ'의 영향을 받았다.
④ 뒤의 'ㄹ'의 영향을 받았다.
⑤ 앞의 'ㅂ'의 영향을 받았다.

해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나) 국어의 구조
㉠ 음운
㉡ 국어의 음운 체계, 음운 규칙과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9.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과 ㉡은 어간이 'ㅡ'로 끝나는 용언이 어미 '-아/-어'와 결합하면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잠가'의 경우 '잠그-'에 '-아'가 결합하면서 'ㅡ'가 탈락한 형태이고, '담가'의 경우 '담그-'에 '-아'가 결합하면서 'ㅡ'가 탈락한 형태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로, '치르다'의 어간 '치르-'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ㅡ'가 탈락하여 '치러'와 같은 형태가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간의 끝 'ㅈ'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어간의 끝 'ㄷ'이 'ㅌ'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어간의 끝 'ㅂ'이 어미 '-어' 앞에서 'ㅍ'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어간의 끝 음절 'ㄹ'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0.

해설

단어의 성분 분석
정답이 정답인 이유
'쓰다, 끼다, 입다, 신다'는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유의어들이다. 하지만 이들 유의어는 모두 착용한다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 (나) 국어의 구조 / ㉤ 의미
㉡ 단어의 의미 유형과 단어 간 의미 관계, 의미 변화의 양상을 이해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1.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깨끗하다'가 [깨館하다]로 변동되는 것은 음절 끝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기 때문인데 이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끝에 오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음운 변동 현상으로 ㉠의 '교체'에 해당한다. 또한 [깨館하다]가 [깨끄타다]로 발음되는 것은 인접한 두 음운 'ㄷ'

해설

과 'ㅎ'이 합쳐져 제3의 음운인 'ㅄ'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㉔의 '축약' 현상에 따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㉓의 '탈락'은 '좋은'이 [조은]으로 발음되어 'ㅎ'이 없어지거나 '크어'가 [커]로 발음되어 'ㄱ'이 없어지는 것처럼 한 음운이 단순히 없어지는 음운 변동 현상을 가리킨다. ㉔의 '첨가'는 '논일'이 [논닐]로 발음되어 'ㄴ'이 첨가되는 것처럼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음운 변동 현상을 가리킨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2.

해설

불규칙 활용의 사례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일컫다'는 '일컫고, 일컫지, 일컫어, 일컫어서' 등으로 활용하므로 어간이 바뀌는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깨달다'는 '깨달으니, 깨달아서' 등과 같이 어간이 바뀌는 활용을 보인다.
- ② '눅다'는 '눅워, 눅으니' 등과 같이 어간이 바뀌는 활용을 보인다.
- ④ '푸르다'는 '푸르러, 푸르러서' 등과 같이 어미가 바뀌는 활용을 보인다.
- ⑤ '파랗다'는 '파래, 파래서' 등과 같이 어간과 어미 모두가 바뀌는 활용을 보인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앞 / (나) 국어의 구조 / ② 단어

㉔ 단어의 품사 분류를 이해하고 품사 지식이 국어사전에 활용되는 양상을 탐구한다.

문법 II

(1) 국어와 규범 / (나) 올바른 단어 사용

①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3.

해설

품사 통용의 개념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비 온 뒤라 그런지 앞산이 한결 더 푸르러 보인다.'와 '푸른 공기를 들이마셨다.'에서 '푸르러'와 '푸른'의 품사는 모두 형용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에서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나도 그 사람만큼 될 수 있다.'에서 '만큼'은 조사이다.
- ② '하나무 들으면 열을 안다.'에서 '열'은 수사이고,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에서 '열'은 관형사이다.
- ③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에서 '밝다'는 형용사이고, '벌써 날이 밝는다.'에서 '밝는다'는 동사이다.
- ④ '다섯까지는 필요 없고 셋이면 되겠는데.'에서 '다섯'은 수사이고, '고구마가 다섯 가마니에 좁쌀이 두 가마니였다.'에서 '다섯'은 관형사이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해설

문법 I

(1) 국어와 앞

(나) 국어의 구조

② 단어

㉔ 단어의 품사 분류를 이해하고 품사 지식이 국어사전에 활용되는 양상을 탐구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4.

해설

서술어 자릿수의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피다'는 '~이 피다.'라는 구조이므로 '예쁘게'라는 문장 성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다'는 두 자리 서술어가 아니라 한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두껍다'는 주어 이외에 특별히 필요한 문장 성분이 없다.
- ③ '닭다'는 주어 이외에 '~과'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
- ④ '치르다'는 주어 이외에 '~에게'와 '~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
- ⑤ '빌리다'는 주어 이외에 '~에서'와 '~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앞

(나) 국어의 구조

③ 문장

㉔ 문장의 성분에 따라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문장의 종류를 이해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5.

해설

파생 접사를 이용한 새말 만들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여러 파생 접사의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한과장이'라는 새말을 만들었는데,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한과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쓰기에 적합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것인데, 어떤 것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의미이므로, '그것을 자주 하다.'의 의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 ③ '멋있게 잘하다.'의 의미로 '-꾸러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장이'는 특별한 기술과 관련된 것이기에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6.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국어의 단어들은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로 분류된다. 이 중 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주로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관형사'이다. 제시된 답지 중 관형사는 ④의 '갓은'이다. '갓은'은 활용을 하지 않으며 '노력'과 같은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빨리'는 활용을 하지 않으며 다른 말을 꾸미기는 하지만 체언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왔다'와 같은 용언을 꾸민다. '빨리'의 품사는 '부사'이다.
- ② '훌쩍'은 활용을 하지 않으며 다른 말을 꾸미기는 하지만 체언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컸다'와 같은 용언을 꾸민다. '훌쩍'의 품사는 '부사'이다.
- ③ '좋은'은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로 이 문장에서는 체언 '곳'을 꾸미기는 하지만 품사로는 '형용사'이다. '좋고, 좋으니, 좋아서' 등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 ⑤ '예쁜'은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로 이 문장에서는 체언 '자식'을 꾸미기는 하지만 품사로는 '형용사'이다. '예쁘고, 예쁘니까, 예뻐서' 등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7.

해설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파악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이 문제는 품사의 개념과 품사를 나누는 세 가지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할 때, 각 기준에 따라 분류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아야 한다.

[문제 풀이 방법]

- 단어를 문법적·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나누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 '품사'란 단어를 문법적·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한다.
- 단어들은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먹다, 예쁘다, 이다'와 같은 단어들은 ㉢형태가 변하는 예이다.
 - 단어는 '형태'의 변화 여부를 기준으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다. 불변어는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단어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이 이에 해당하고, 가변어는 형태가 바뀌는 단어로 '용언'이 있다. 서술격 조사 '이다'는 용언은 아니지만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변어에 해당된다.
- 단어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역할이나 구실)을 기준으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 체언은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눌 수 있다.
 - 체언을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누는 것은 의미에 따른 것이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고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며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힌트

국어의 품사를 나누는 기준에는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8.

해설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의 구분

<보기>의 ㉠에 해당하는 명사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의존 명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의존 명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밥 먹을 때가 지나서 배가 고프다.
 - '때'는 관형어 '밥 먹을'의 꾸밈을 받고 있지만, '때를 기다리다.'와 같이 관형어의 꾸밈 없이도 홀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때'는 자립 명사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주도에 가 본 지가 오래되었다.
 - '지'를 꾸미는 관형어 '제주도에 가 본'을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지'는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의존 명사이다.
- ③ 우리는 먹을 데를 찾아서 이동했다.
 - '데'를 꾸미는 관형어 '먹을'을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데'는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의존 명사이다.
- ④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 '바'를 꾸미는 관형어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을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바'는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의존 명사이다.
- ⑤ 나는 사랑하는 이에게 헌신하고 싶다.
 - '이'를 꾸미는 관형어 '사랑하는'을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이'는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의존 명사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9.

해설

수사와 관형사(수 관형사)의 구분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 문제는 수사와 관형사(수 관형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수사와 수 관형사는 모두 수량이나 순서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수 관형사의 문법적 특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문제 풀이 방법]

- ⑤ 우리나라는 세 면이 바다에 접해 있다.
 - '세'는 '면'을 꾸며 주는 수 관형사이다. 수사는 조사와 결합하며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수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 명사를 수식한다.

[예시 답안]

- ① 학생 서넛이 찾아왔어요.
 - '서넛'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되어 있다.
- ② 우리 집 식구는 다섯이다.
 - '다섯'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되어 있다.
- ③ 아주머니, 사과 하나만 주세요.
 - '하나'에 보조사 '만'이 결합되어 있다.
- ④ 우리의 이념 중 첫째는 진리이다.
 - '첫째'에 보조사 '는'이 결합되어 있다.

힌트

40.

힌트

체언인 수사는 조사가 붙을 수 있으나 수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수식언인 수 관형사는 뒤의 명사를 꾸며 준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해설

독립어의 특성 파악

㉠과 ㉡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독립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묻고 있다. 제시된 말을 보고 그것이 독립어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먼저 독립어의 개념과 문법적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 '철수야'와 '아니'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독립하여 쓰이는 독립어에 해당된다. ㉡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감탄사는 모두 이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모두 독립어로 쓰인다.
- ②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생략해도 전체 문장이 비문이 되지 않는다.
- ③ 글에서 이 문장 성분 뒤에는 흔히 반점(.)을 찍는다.
→ 말에서 독립어 뒤에는 약간의 '쉼(끊어 말하기)'이 나타난다. 글에서 독립어 뒤에는 흔히 반점(.,')을 찍는데, 이는 독립어가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 ④ 체언에 호격 조사 '아/야, (이)여'가 결합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 독립어는 '영숙아, 철수야, 하늘이여'와 같이 체언에 호격 조사 '아/야, (이)여'가 결합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힌트

㉠과 ㉡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은 독립어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1.

해설

보조사의 쓰임 분석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ㄷ의 밑줄 친 보조사 '이나'의 의미에 주목하여 문장을 해석할 때, ㄷ은 '마치 현실의 것인 양 가정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뜻을 더해 준다.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이라는 의미로 쓰인 예로는 '그것이나 가져라.'에 나타난 '이나'를 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ㄱ의 보조사 '은'은 '대조'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 ② ㄴ의 보조사 '만'은 '단독'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 ④ ㄹ의 보조사 '밖에'는 '더 없음'이라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 ⑤ ㄷ의 보조사 '조차'는 '앞말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그 이상의 것이 더해짐'이라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2.

해설

인칭 대명사의 종류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누구'는 부정칭 대명사가 아니라 미지칭 대명사로 볼 수 있다. <보기 2>의 상황에서 ㉡은 둘 중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하나가 소나무를 뿌리째 뽑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묻는 물음에 쓰이고 있다. 따라서 <보기 1>의 설명을 참고한다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당신'은 보통 2인칭 대명사로 쓰이지만, 이 경우에는 그 문장의 주어로 쓰인 '아버님'을 다시 받는 재귀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 ③ '저'는 화자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이다.
- ④ '그'는 주어인 '동생'을 받는 3인칭 대명사이다.
- ⑤ '자기'는 같은 문장에서 앞서 나온 주어인 '동생'을 다시 받는 재귀 대명사이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1

(1) 국어와 앞

(나) 국어의 구조

② 단어

㉠ 단어의 품사 분류를 이해하고 품사 지식이 국어사전에 활용되는 양상을 탐구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3.

해설

관형사의 세부 유형 분류

다음 문장에서 관형사를 모두 찾아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로 분류해 보자.

이 문제는 관형사의 세부 종류인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관형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관형사의 개념과 문법적 특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문제 풀이 방법]

'한'은 사물의 수량을 표시하는 수 관형사이고, '새'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관형사이다. '그'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이다. 한편, '따뜻한'은 체언(명사) '마음'을 꾸며 주는 말이기 는 하지만, 형용사 '따뜻하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관형어이다.

[예시 답안]

- (1) 성상 관형사 : 새
- (2) 지시 관형사 : 그
- (3) 수 관형사 : 한

힌트

성상 관형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관형사를 말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4.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관형사 '다른'과 형용사 '다르다'는 문장 속에서 관형어 '다른'으로 쓰일 때 형태가 같아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관형사 '다른'은 '이외의'의 뜻을 지니며 비슷한 뜻의 관형사인 '딴'과 바꾸어도 의미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과 ㉡에 쓰인 '다른'이다. 또한 형용사 '다르다'는 문장 속에서 '달라, 다르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 ㉡, ㉢에서는 각각 '그는 우리와 달라(다르니),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다르니), 쌍둥이들도 각자 달라(다르니)'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다르다'는 형용사이다. 또한 ㉣, ㉤, ㉥에 쓰인 '다르다'는 모두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끝으로, 형용사 '다르다'는 조사 '과(와)'와 연결되거나(㉠, ㉡),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는(㉢) 문형 정보도 고려할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5.

해설

문장 성분의 특성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서술어 '주었니'의 목적어는 '돈만'으로, ㉢은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이 아니다. 이 문장의 목적어 '돈만'은 특정한 의미를 더하려는 목적으로 인해 목적격 조사 '을' 대신 보조사 '만'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각 문장은 서술어에 의해 문장이 성립하는 데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가 결정되고 있다. 각각의 서술어로 인해 ㉠은 주어, ㉡은 주어와 목적어, ㉢은 주어와 보어, ㉣은 주어와 목적어, ㉤은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이 되고 있다.
- ② ㉠의 '무척'은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이고, ㉢의 '설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④ ㉤에서 독립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는 독립어인 '김 대리'가 아니라 '회사'이다. 이와 달리 ㉡에서 '가졌는가'의 의미상 주어는 독립어인 '젊은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관형어 '높은'이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가 다소 변할 뿐, 문장 자체의 성립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의 관형어 '먹을'은 생략될 경우,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6.

해설

품사와 문장 성분의 분류 기준 파악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첫, 좋았다'의 품사와 문장 성분

'첫'은 '맨 처음의'이라는 의미를 지닌 '관형사'이며, 문장 성분은 뒤의 '시험'을 수식해 주므로 '관형어'이다. '좋았다'는 기본형이 '좋다'로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7.

해설

관형사절의 종류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는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문장이 '그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문장 속에 안겨 있는 형태이다. 안긴문장의 수식을 받는 '사실'이라는 체언이 안긴문장의 한 성분이 아니라, 안긴문장과 의미상 동격 관계에 있으므로 ㉤은 동격 관형절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향기가 좋은 꽃이 가득하다.'는 '꽃이 향기가 좋다.'라는 문장이 '꽃이 가득하다.'라는 문장에 안긴 형태이다. 따라서 '꽃'은 안긴문장의 주어이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기도 하므로 ㉠은 관계 관형절이다.
- ② '내가 읽을 책이 책장에 가득하다.'는 '내가 책을 읽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책이 책장에 가득하다.'라는 문장에 안긴 형태이다. 따라서 '책'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기도 하므로 ㉡는 관계 관형절이다.
- ③ '내가 태어난 그해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내가 그해에 태어났다.'라는 문장이 '그해에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문장에 안긴 형태이다. 따라서 '그해'는 안긴문장의 부사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부사어이기도 하므로 ㉢은 관계 관형절이다.
- ④ '내가 공부한 학교는 저 언덕 끝에 있다.'는 '내가 학교에서 공부했다.'라는 문장이 '학교는 저 언덕 끝에 있다.'라는 문장에 안긴 형태이다. 따라서 '학교'는 안긴문장의 부사어이기도 하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기도 하므로 ㉣는 관계 관형절이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나) 국어의 구조

③ 문장

㉡ 문장의 성분에 따라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문장의 종류를 이해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8.

해설

목적어의 특성에 관한 탐구

[정답이 정답인 이유]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된 것만 목적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 '우유나'처럼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된 것도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므로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럼, 우유나 마실까?"라는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에서 '먹다'는 동작을 나타내고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에서 '보다' 역시 동작을 나타낸다. 두 문장에서 '빵을'과 '모습을'이라는 목적어는 각각 '먹다'와 '보다'라는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
- ②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에서 '빵을'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놓여 있어서 목적어의 전형적인 자리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에서 '그런 내 모습'이라는 목적어는 주어 앞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목적어의 전형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는 서술어 '먹었다'의 속성상 '빵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는 서술어 '고우셨

해설

다'의 속성상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 이로 보아,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빵을'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빵') 다음이므로 목적격 조사로 '을'이 쓰였고 '우유를'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우유') 다음이므로 목적격 조사로 '를'이 쓰였다. 이로 보아,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9.

해설

파생 접사와 어미의 구분

정답이 정답인 이유

'먹이'의 '-이'는 동사를 명사로, '높이'의 '-이'는 형용사를 부사로 바꾸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먹고'의 '-고'와 '높고'의 '-고'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한다. 단지 활용형을 만들 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먹이'의 파생 접미사 '-이'는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어 주고, '높이'의 파생 접미사 '-이'는 품사를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꾸어 주지만, 어미는 품사를 새롭게 바꾸어 주지 못한다.

② 어미들은 그 의미가 일정하지만 파생 접미사들은 결합되는 어근에 따라 그 의미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높게, 깊게, 짧게, 작게'에서 어미 '-게'는 그 의미가 모두 같지만, '털갈이, 재떨이, 구두닦이'의 파생 접미사 '-이'는 그 의미가 각각 다 다르다. '털갈이'의 '-이'는 '~하는 일'의 의미를 나타내고, '재떨이'의 '-이'는 '~하는 도구'를 나타내며, '구두닦이'의 '-이'는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③ 파생 접미사와 결합된 말은 새로운 단어로써 사전에 등재되지만 어미와 결합된 말은 단지 활용형이기에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다.

④ '높게, 깊게, 짧게, 작게'와 '높이, 깊이, *짧이, *작이'에서 나타나듯이 어미는 그 어간과의 결합이 자유로운 반면, 파생 접미사는 그 결합이 제약되어 있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앞 / (나) 국어의 구조 / ③ 문장

㉔ 국어 문법 범주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 방법을 설명한다.

문법 II

(1) 국어와 규범 / (나) 올바른 단어 사용

①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0.

해설

[정답찾기]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한과장'이라는 새말을 만들었는데,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한과를 만드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쓰기에 적합하다.

[유형분석노트]

문제 유형 파악

이 문항은 <언어생활의 양상> 유형과 관련하여 일상적 언어생활에서 생성된 새말의 적절성을 국어

해설

단어 형성법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즉,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여러 파생 접사의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담화 분석 활동

제시된 지문은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과정을 소개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국어 교사는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새말의 기능, 파생 접사를 이용한 새말의 사례,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파생 접사 등을 지도하고 있다.

유형 해결 전략

우선 새말에 쓰이는 파생 접사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한다. 다음으로 파생 접사를 이용하여 만든 새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①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것인데, '어떤 것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의미이므로, '그것을 자주 하다.'의 의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멋있게 하다.'의 의미로 '-꾸러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장이'는 특별한 기술과 관련된 것이기에 '많이 한다.'는 뜻과는 거리가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1.

해설

접속어의 역할 파악

'그렇기 때문에', '반면' 등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연결을 통해 문장, 문단 간의 결합력(응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② 접속부사의 역할은 내용 생성과는 관련이 없다.

③ 접속부사의 사용은 독자의 호기심이나 흥미를 유발하기보다 독자의 내용에 대한 예측에 도움을 준다.

④ 여러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준다.

⑤ 이어지는 문장의 강조보다 문장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에 도움을 준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2.

해설

의문문의 종류 파악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수사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이나 설명 의문문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보기>에 제시된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의 용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각 의문문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곳에서 집까지 차로 얼마나 걸리는지요?

→ 이 문장은 청자에게 대담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청자에

해설

게 '차를 이용할 경우 이곳에서 집까지의 소요 시간'을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무려면 나만 한 사람이 또 있으랴?
→ 화자는 청자에게 특정 대답을 요구하기보다, 나의 뛰어난 점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② 나에게도 천재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 화자는 청자에게 특정 대답을 요구하기보다, '나에게는 천재성이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이런 일이 힘들어 봐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 화자는 청자에게 특정 대답을 요구하기보다, '이런 일은 힘들지 않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힘들어 봐야'라는 구절로 보아 얼마나 힘든지를 정말로 묻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⑤ 꼬마들도 알 만한 그렇게 쉬운 것을 누가 모르니?
→ 화자는 청자에게 특정 대답을 요구하기보다, '누구나 그 사실을 안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꼬마들도 알 만한 그렇게 쉬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것은 생각하기 매우 어려운 비상식적인 해석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3.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오늘은 무척 의미 있는 하루였다.'에서 '의미 있는'을 서술절로 볼 수 없다. '의미 있는'은 '하루'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나는'과 '하였다', '선생님께서'와 '내 주신'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맺고 있다.
- ② '선생님께서 내 주신'은 명사 '숙제'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관형절이다.
- ③ '함께'를 '모여'로 고치면, '온 가족이 모여'와 '(온 가족이) ~ 하였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이 된다.
- ⑤ ㉠은 '특별한 ~ 없었지만'과 '오늘은 ~ 하루였다'가 이어진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어진문장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4.

해설

목적어의 쓰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실제의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목적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탐구해 보는 문항이다. ㉠의 '우유나'처럼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된 것도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므로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럼, 우유나 마실까?"라는 문장에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에서 '먹다'는 동작을 나타내고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에서 '보다' 역시 동작을 나타낸다. 두 문장에서 '빵을'과 '모습을'이라는 목적어는 각각 '먹다'와 '보다'라는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
- ②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에서 '빵을'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놓여 있어서 목적어의 전형적인 자리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에서 '그런 내 모습을'이라는 목적어는 주

해설

어 앞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목적어의 전형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는 서술어 '먹었다'의 속성상 '빵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는 서술어 '고우셨다'의 속성상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 이로 보아,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빵을'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빵' 다음에 목적격 조사 '을'이 쓰였고, '우유를'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우유' 다음에 목적격 조사 '를'이 쓰였다. 이로 보아,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5.

해설

의문문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ㄱ에서 말하는 이는 '어디'에 관한 정보를 설명해 주도록 듣는 이에게 요구하고 있고, ㄴ에서 말하는 이는 듣는 이에게 '지금 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에 대하여 판정을 내려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듣는 이에게 특별히 대답을 요구하지만, ㄷ~ㄹ은 그렇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ㄱ이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대답을 요구한다면, ㄴ은 그러한지의 여부, 즉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한다.
- ② ㄷ은 '나는 이 상자를 들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 ③ ㄹ은 형태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이나 감탄문과 동일하다.
- ④ ㄹ은 상대방에게 그만두라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명령문과 같은 기능을 한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1

- (1) 국어와 앞 / (나) 국어의 구조 / ⑤ 의미
- ㉠ 문장, 담화의 다양한 의미 생성 방식을 탐구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6.

해설

겹문장의 구조 분석

<보기>의 ㉠, ㉡을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안은문장에 안긴 절을 유형별로 바르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의 ㉡에서는 안긴 절을 만드는 어머니가 쓰이지 않았다.
→ ㉡는 관형절 '우리가 입학할'로서, 관형절을 만드는 어머니 '-=이' 쓰였다.
- ㉠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에는 두 개의 주어가 모두 나타나 있다.
→ ㉠에서 전체 문장의 주어 '저곳이'와 안긴 절의 주어 '우리가'는 서로 다

해설

르므로 둘 다 나타나 있다.
 ③ ㉠의 ㉡와 ㉢는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다.
 → ‘㉡ 네가 집안일도 열심히 돕다’와 ‘㉢ (네가) 공부도 열심히 하다’는 서로 대칭적이고 독립적이다. 이들은 ‘나열’을 의미하는 연결 어미 ‘-고’를 통해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다.
 ④ ㉠의 ㉣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에서 ㉣의 주어는 ‘네가’인데, ㉡에 동일한 주어가 사용되어 있으므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되어 있다.
 ⑤ ㉠의 ㉡와 ㉢의 ㉣는 안긴 절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 ㉠의 ㉡는 관형절 ‘우리가 입학할’이며, ㉢의 ㉣는 명사절 ‘네가 집안일도 열심히 돕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이다. 따라서 안긴 절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7.

해설

높임의 양상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제시된 문장은 주격 조사로 ‘가’가 쓰이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께’, ‘드렸어요’로 보아 객체 높임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으며, 해요체가 쓰인 것으로 보아 [+상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체] [+객체] [+상대]로 표시할 수 있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삶
 (나) 국어의 구조
 ③ 문장
 ④ 국어 문법 범주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 방법을 설명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8.

해설

시제 표현 파악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확인 1] ‘-겠-’의 쓰임
 ‘-겠-’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나,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확인 2] a와 b의 ‘-겠-’의 쓰임
 모두 추측, 추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a는 현재의 일을 추측하고 있고, b는 미래의 일을 추측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확인 1] ‘-은’과 ‘-는’의 쓰임
 ‘-은’은 동사와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는’은 동사와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확인 2] ‘읽은’과 ‘읽는’의 시제
 ‘읽은’은 사람들이 이미 책을 읽었다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며, ‘읽는’은 사람들이 지금 책을 읽고 있다는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해설

②[확인 1] ‘-는’의 쓰임
 ‘-는’은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확인 2] ‘오는 기척이 들린다’와 ‘오는 기척이 들렸다’
 ‘오는 기척이 들린다’는 현재 동작이 진행 중임을, ‘오는 기척이 들렸다’는 과거에 동작이 진행 중이었음을 나타낸다. 뒤에 오는 서술어 때문에 시제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는’에 의해 진행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③[확인 1] ‘가다가’의 시제
 ‘가다가’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a에서는 ‘가다가’가 뒤의 서술어 ‘왔다’에 의해 과거의 의미를 지닌다.
 [확인 2] ‘가다가’와 ‘갔다’의 비교
 ‘가다가’와 ‘갔다’는 모두 과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④[확인] ‘가다가’와 ‘갔다’의 차이점
 ‘가다가’는 목적지까지 다 가지 않고 중단한 것이며, ‘갔다’는 목적지까지 다 가서 일단 그 ‘가는’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9.

해설

상대 높임 표현과 부정 표현의 동시 적용
 다음 문장을 ‘해체’의 부정 명령문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상대 높임 표현과 부정 표현을 동시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상대 높임 표현과 부정 표현이 실현되는 양상을 분명하게 알아 두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마.
 → ‘올려놓아라’를 해체의 부정 명령형으로 바꾸면 ‘올려놓지 마’가 된다. 참고로 ‘해라체’의 부정 명령형은 ‘~지 마라’가 된다. ‘~지 말아라’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아.
 → ‘올려놓아’는 해체의 긍정 명령형이다.
 ③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으세요.
 → ‘올려놓으세요’는 해요체의 긍정 명령형이다.
 ④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말게.
 → ‘올려놓지 말게’는 하계체의 부정 명령형이다.
 ⑤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 ‘올려놓지 마십시오’는 하심시오체의 부정 명령형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0.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는 주체 ‘나’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즉 객체인 ‘형님’을 높이기 위해 ‘만나다’가 아닌 ‘뵙다’가 쓰였다. ㉡에서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데리다’가 아닌 ‘모시다’가 쓰였다. ㉢에서는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묻다’가 아닌 ‘여쭙다(여쭙다)’가 쓰였다.
 ㉣의 ‘계시다’는 ‘있다’의 높임말인데 문장의 주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의 ‘잡수시다’는 ‘먹다’의 높임말인데 안긴문장의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즉 ㉢과 ㉤은 주체 높임법이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된 사례이다. 이들은 객체 높임법이 특수한 어휘를 통해

해설

실현된 ㉠, ㉡, ㉢과는 구분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1.

해설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구체적 적용

㉠~㉢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일상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높임 표현을 문법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높임 표현에서 높이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ㄴ과 ㄹ에서 접미사 '-히-'가 결합된 두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로 동일하다.

→ ㄴ의 '잡혔다'는 주어(이 문장에서는 '토끼 한 마리가')와 필수적 부사어(이 문장에서는 '포수에게')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ㄹ의 '입히셨다'는 주어인 '어머니께서'와 필수적 부사어 '아이에게'와 목적어 '옷을'을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ㄱ은 능동 표현이고, ㄴ은 피동 표현이다.

→ ㄱ은 포수가 스스로 동작을 하는 능동 표현이며, ㄴ은 토끼가 포수에 의한 동작을 당하는 피동 표현이다.

㉡ ㄱ의 주어는 ㄴ에서 부사어로 나타나 있다.

→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 '~에/에게, ~에 의해' 등으로 나타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다.

㉣ ㄷ의 '입다'의 주체는 '아이'이고, ㄹ의 '입히다'의 주체는 '어머니'이다.

→ ㄷ은 주동 표현이고 문장의 주체는 '아이'이다. ㄹ은 ㄷ의 사동 표현으로, '어머니'는 '아이'에게 '옷을 입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주체가 된다.

㉤ ㄹ의 '입히다'는 ㄷ의 '입다'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것이다.

→ ㄹ은 사동 표현으로, ㄹ의 '입히다'는 '입다'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것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2.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않았니'는 부정 표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소현'과 이전에 영화를 함께 보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않았니'는 함께 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확실치 않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선생님은 '못'이 능력 부정, '안'이 의지 부정에 사용된다는 것을 활용하여 청자인 학생의 세부적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묻고 있다.

㉡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는 '안'과 '못'이 사용되지만,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마라'와 '말자'가 사용된다.

㉢ (다)의 '않-'은 상태 부정으로, 의미상 의지 부정 또는 능력 부정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 '영수', '책', '샀다' 중 어떤 것을 부정하는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3.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그랬지'는 '그리하였지'의 준말이다. 여기서 '-었-'은 작년 소풍 전날에 비가 왔지만 소풍날에는 비가 오지 않은 사건이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것임을 나타낸다. 소연이 말한 내용은 작년 소풍 전날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므로, 발화시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은 '-았-'을 사용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 ㉣에 사용된 '-았-'은 소풍 전날 비가 온 사건이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일임을 나타낸다.

㉣ ㉤에 사용된 '-었-'은 어떤 상황이 발화시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는 '-았-'을 사용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참고(표준국어대사전)

-었-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용언의 어간에 붙어)(□다른 어미 앞에 붙어)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예)예전에는 명절에 선물로 설탕을 주었다. / 철수는 이미 밥을 먹었다. / 작년 소풍날은 날씨가 좋았다.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예)코스모스가 활짝 피었구나. / 간밤의 비로 강물이 많이 불었다.

「3」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이는 어미.

(예)야,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 날씨가 이렇게 가무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4.

해설

피동사와 사동사의 구분

밑줄 친 부분이 피동사인 것은?

이 문제는 피동과 사동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별할 수 있도록 관련 이론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피동사는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되어 형성되고, 사동사는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나는 힘 눈으로 덮인 산을 바라본다.

→ '덮이다'는 '덮다'의 피동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그는 남들을 잘 웃겼다.

→ '웃기다'는 '웃다'의 사동사이다.

㉡ 아이들이 얼음을 녹이고 있다.

→ '녹이다'는 '녹다'의 사동사이다.

㉢ 아무도 집 안으로 들이지 마라.

해설

- '들이다'는 '들다'의 사동사이다.
- 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었다.
- '세우다'는 '서다'의 사동사이다.

힌트

피동사는 주어가 남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동사는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5.

해설

문장 종결 표현 파악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확인 1] ㄷ의 문장 종류와 의미 파악하기

'김 대리는 안 추워?'라는 ㄷ의 문장을 보면 의문문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은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나 동기가 김 대리에게 한 말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추우니까 에어컨을 꺼 달라는 요청 혹은 명령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확인 2] 바꾼 문장의 종류와 의미 파악하기

ㄷ의 문장을 '김 대리, 에어컨 좀 꺼 줘.'로 바꾼다면 에어컨을 꺼 달라고 명령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ㄷ의 의문문을 명령문으로 바꾸면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일치하게 되므로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확인] ㄱ의 문장 종류와 의미 파악하기

ㄱ의 문장을 보면 화자는 도서관에서 떠드는 친구에게 "시끄러워 공부 안 되네."라고 말하고 있다. 문장의 종류는 평서문이지만 '조용히 해라.'라고 명령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확인] ㄴ의 문장 종류와 의미 파악하기

ㄴ의 문장을 보면 화자는 야외 활동 중 친구에게 "먹구름이 몰려오네."라고 말하고 있다. 문장의 종류는 평서문이다. 그런데 청자가 "그만 집으로 들어갈까?"라고 말했다면 청자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비 오기 전에 또는 비를 맞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자.'는 청유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확인] ㄹ의 문장 종류와 의미 파악하기

ㄹ의 문장을 보면 교사가 제자를 나무라며 "너는 도대체 몇 살이니?"라고 말하고 있다. 문장의 종류는 의문문인데, 문장의 기능은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명령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자가 실제 자신의 나이를 묻는 것으로 인식하여 "열아홉 살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청자는 문장의 종류(의문문)와 기능이 일치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⑤[확인] ㅁ의 문장 종류와 의미 파악하기

ㅁ의 문장을 보면 화자는 몹시 무더운 날 후배에게 "야, 정말 목이 타는구나!"라고 말한다. 그런데 청자가 화자에게 물을 떠다 주었다면 청자는 문장의 기능(시원한 물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명령하는 의미)과 문장의 종류(감탄문)가 다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6.

해설

시제의 구분

해설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 보자.

이 문제는 제시된 문장에서 사용된 시제를 보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의 실현 양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실현하는 문법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제 풀이 방법]

(1) 자기 앞에 가는 철수를 불러라.

→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의 경우 '-는'이 쓰인다. 따라서 (1)의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는 현재이다.

(2) 내일은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 '-겠-' 혹은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합쳐져 '-(으)ㄹ 것'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2)의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는 미래이다.

(3) 어제 읽은 책은 무척이나 감명 깊었다.

→ 과거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의 경우 '-(으)ㄹ'이 쓰인다. 따라서 (3)의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는 과거이다.

(4) 예쁜 꽃을 보니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는 형용사의 경우 '-(으)ㄹ'이 쓰인다. 따라서 (4)의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는 현재이다.

(5) 열심히 공부해서 꼭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 '-겠-' 혹은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합쳐져 '-(으)ㄹ 것'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5)의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는 미래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7.

해설

높임 표현의 이해 및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ㄱ에서 '드렸다'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문장의 주체는 '그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ㄴ의 '께서'와 '-시-'는 주체인 '삼촌'을, ㄷ의 '께서'와 '-시-'는 주체인 '숙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③ ㄷ의 '뵈자고'는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④ ㄷ의 '요'와 ㄹ의 '-십시오'는 각각 상대방인 '엄마'와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⑤ ㄹ의 '말씀'은 상대방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말을 낮춘 낮춤말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8.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피동문을 쓰면 동작주의 동작성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즉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라고 표현하면, 동작주인 '개'의 행위는 잘 부각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피동문으로 표현할 경우 주어로 나타나는 피동작주(여기서는 '사람')에 초점이 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능동문을 쓸지 피동문을 쓸지는 어떤 대상에 초점을 둘지와 관련이 있다.

해설

- ②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피동작주(여기서는 '사람')가 주어가 되어 피동작주에 초점이 가게 된다.
- ③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라는 문장에서는 피동작주인 사람이 주어가 되어 초점을 받게 된다.
- ④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와 같이 피동문으로 표현하면 동작주인 '개'의 동작성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9.

해설

피동 표현의 탐구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확인]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어색해지는 경우
 ㄱ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옥이 한솔이에게 먹혔다.', ㄴ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고기 맛이 동훈이에게 보였다.'가 되어 문장이 어색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확인]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어도 어색하지 않은 경우
 ㄴ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동생이 민석이에게 안겼다.', ㄷ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승찬이가 지현이에게 잡혔다.'가 되어 문장이 자연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0.

해설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1)에서는 '지금'이라는 말로 보아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고, (2)에서는 '지난주'라는 말로 보아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며, (3)에서는 '내일'이라는 말로 보아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은 '사건시 = 발화시', (2)는 '사건시 > 발화시', (3)은 '사건시 < 발화시'로 표시할 수 있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나) 국어의 구조

③ 문장

㉔ 국어 문법 범주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 방법을 설명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1.

해설

시제 표현의 특성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ㄹ'을 통해서 '-던'과 '-있던' 사이에 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며, 모두 과거의 어떤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

해설

있던'은 그 일이 옛일이라는 점을 좀 더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여기가 내가 자주 다니던 영화관이다. / 여기가 내가 자주 다닌 영화관이다.'에서 '영화관에 다닌 일'은 과거의 일에 해당한다.
- ② '하던 일을 마저 해치우자.'에서 '하던 일'은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일을 가리킨다.
- ③ '출생'은 과거에 단 한 번만으로 완료된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속성을 갖는 행위에 '-던'이 사용될 수 없음이 드러난다.
- ④ '바람에 쓰러졌던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던 나무'에 비해 '쓰러지는' 행위가 완결된 느낌을 준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나) 국어의 구조

③ 문장

㉔ 국어 문법 범주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 방법을 설명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2.

해설

언어 예절의 적절성 평가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확인] 상황에 따른 높임 표현의 양상

[상황 1]에서는 '박 과장'이 '김 과장'을 대상으로, [상황 2]에서는 '최 사장'이 회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두루 높임인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상황 1]에서 '박 과장'의 높임 표현은 상대방인 '김 과장'에 대한 친밀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 2]에서 '최 사장'이 불특정 다수의 회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확인] 상황의 차이로 인한 호칭의 변화

[상황 1]에서는 '김 과장'이 '박 과장'을 '자네'로, '박 과장'이 '김 과장'을 '선배님'으로 부르고 있으나, [상황 2]에서는 성에 직급을 붙여 서로를 '김 과장님', '박 과장님'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상황 1]보다 [상황 2]가 좀 더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②[확인] 상황의 차이로 인한 높임 표현의 변화

[상황 1]에서는 '박 과장'이 고등학교 선배인 '김 과장'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상황 2]에서는 서로에게 동등한 수준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화자의 상황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확인] 호칭의 차이와 그 의미

[상황 1]에서 '김 과장'이 '박 과장'을 '자네'로, '박 과장'이 '김 과장'을 '선배님'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사이에는 연령이나 경력의 차이가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확인] 높임 표현의 결정 요인

[상황 1]과는 달리 [상황 2]에서 '김 과장'과 '박 과장'은 서로에게 동등한 수준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회의와 같이 격식이 중시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직급을 감안하여 동등한 수준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3.

해설

상대 높임 표현의 적용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정도가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것은?

이 문제는 상대 높임 표현의 등급에 대한 문제이다. 상대 높임 표현은 상대를 높이는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며, 격식을 갖추었느냐 여부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도 나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자리에 앉아라.
→ “영수는 빨간색을 좋아하니, 파란색을 좋아하니?”에서 밑줄 친 ‘좋아하니’는 화자가 격식을 갖추어 청자를 낮추는 표현 중 하나인 ‘해라체’에 해당한다. ③의 “자리에 앉아라.”에서 ‘-아라’는 해라체의 명령형 어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리에 앉게.
→ ‘-게’는 하계체의 명령형 어미이다.
- ② 자리에 앉으오.
→ ‘-(으)오’는 하오체의 명령형 어미이다.
- ④ 자리에 앉아요.
→ ‘-아요’는 해요체의 명령형 어미이다.
- ⑤ 자리에 앉으십시오.
→ ‘-으십시오’는 하십시오체의 명령형 어미이다.

힌트

상대 높임법의 등급

		격식체	비격식체
높임	아주높임	하십시오체	해요체
	예사높임	하오체	
낮춤	예사낮춤	하계체	해체
	아주낮춤	해라체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4.

해설

국어의 문법 범주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주동문은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나 ㉡의 주동문에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적어를 가진 주동문만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주동문에 나오는 ‘옷을’이라는 목적어는 사동문에서도 그대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에서는 주동문의 ‘물다’에 접미사 ‘-리-’를 결합하여 사동문을 만들었고, ㉡에서는 주동문의 ‘입다’에 접미사 ‘-히-’를 결합하여 사동문을 만들었다.
- ④ ㉠에서는 ‘형’이라는, ㉡에서는 ‘엄마’라는 새로운 동작 주체가 나타나고 있다.
- ⑤ ㉠에서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에서 목적어가 되었고, ㉡에서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에서 부사어가 되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5.

해설

해설

종결 어미의 쓰임 분석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에 관련된 여러 문법 지식을 묻는 문제이다.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외에도 문장의 중의성이나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ㄷ에서 ‘-대’는 ‘-더라’와 바꿔 쓸 수 있겠군.
→ ‘-더라’와 바꿔 쓸 수 있는 종결 어미는 ‘-데’이다. ‘-대’는 ‘-다고 해’의 줄임말이므로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영화 참 재미있대.’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영화 참 재미있다고 해.’로 바꿔 쓸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ㄱ에서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볼 수 있겠군.
→ ㄱ에서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못 온대’는 ‘못 온다고 해’와 바꿔 쓸 수 있다.
- ② ㄴ에서 ‘-래’는 ㄱ, ㄷ의 ‘-대’와 같은 의미로 쓰였군.
→ ㄴ에서 ‘-래’는 ‘-라고 해’가 줄어든 말로,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인 ‘-대’와 형태적인 차이만 있을 뿐 의미는 동일하다.
- ③ ㄹ에서 ‘-대’는 남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군.
→ ㄹ에서 ‘그 영화가 참 재미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다. 이처럼 ‘-대’는 남에게 전해 들은 사실을 전달할 때 쓰인다.
- ⑤ ㄹ에서 ‘-대’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하는군.
→ ㄹ에서 ‘영화가 발표를 잘한다는 사실’은 화자가 직접 보고 알게 된 사실이다. 이처럼 ‘-대’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보고할 때 쓰인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6.

해설

피동 표현의 특성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간드러지다’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피동(被動)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간드러지다’는 ‘목소리나 땀이 따위가 마음을 녹일 듯이 예쁘고 애교가 있으며, 멋들어지게 보드랍고 가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물리다’는 ‘물다’의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 ③ ‘긱히다’는 ‘긱다’의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 ④ ‘담기다’는 ‘담다’의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 ⑤ ‘뒤바뀌다’는 ‘뒤바꾸다’의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앞

(나) 국어의 구조

③ 문장

㉠ 국어 문법 범주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 방법을 설명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7.

해설

해설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확인 1] 이중 피동의 특성

이중 피동은 피동 표현이 겹쳐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

[확인 2] '가려져'의 분석

②의 '가려져'의 기본형인 '가려지다'는 '가리-'라는 어간에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결합된 말로, 피동 표현이 하나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가려져'는 이중 피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확인] '맡겨지지'의 분석

'맡겨지지'의 기본형인 '맡겨지다'는 '맡-'이라는 어간에 '-기-'라는 피동 접사,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결합된 말이다.

③[확인] '잡혀진다'의 분석

'잡혀진다'의 기본형인 '잡혀지다'는 '잡-'이라는 어간에 '-히-'라는 피동 접사,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결합된 말이다.

④[확인] '관측되어진다'의 분석

'관측되어진다'의 기본형인 '관측되어지다'는 '관측-'이라는 어근에 '-되다'라는 피동 표현, 그리고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결합된 말이다.

⑤[확인] '보여졌다'의 분석

'보여졌다'의 기본형인 '보여지다'는 '보-'라는 어간에 '-이-'라는 피동 접사, 그리고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결합된 말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8.

해설

주체 높임 표현의 이해

다음 대화 중 주체 높임 표현이 쓰이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제시된 문장에서 주체 높임 표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묻고 있다. 주체 높임 표현은 화자가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주체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주로 선어말 어미 '-(으)시-'에 의해 실현되며, 주격 조사 '께서'가 쓰이기도 하고, '계시다, 잡수시다' 등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

→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독감도 쉽게 낫는다니 다행이지요.'에서는 종결 어미 '-지요'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상대 높임 표현이 쓰였을 뿐 주체 높임 표현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

→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디 가셨나요?'에서는 주체 높임 표현이 쓰였다.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문장의 주체인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② ㄴ

→ '독감 때문에 병원 가신다고 아까 나가셨어요.'에서는 주체 높임 표현이 쓰였다.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문장의 주체인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③ ㄷ

→ '맞다, 며칠 전부터 편찮으시다고 하셨지.'에서는 주체 높임 표현이 쓰였다.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해 문장의 주체인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④ ㄹ

→ '연세가 많으셔서 더 힘드신가 봐요.'에서는 주체 높임 표현이 쓰였다.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해 문장의 주체인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힌트

주체 높임 표현은 주로 선어말 어미 '-(으)시-'에 의해 실현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79.

해설

객체 높임 표현의 적용

다음 중 <보기>의 ㉠가 사용된 것은?

이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객체 높임 표현의 개념을 토대로 객체 높임 표현이 실현되는 예를 찾는 문제이다. 객체 높임 표현과 주체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을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영수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 ⑤에는 '모시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통해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 쓰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내일은 늦지 말고 오너라.

→ 해라체 종결 어미 '-너라'를 통해 청자에게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상대 높임 표현이 쓰였다.

②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문장의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 쓰였다.

③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십시오'를 통해 청자인 '여러분'을 높이는 태도를 나타내는 상대 높임 표현이 쓰였다.

④ 아버지가 마루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통해 문장의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 쓰였다.

힌트

객체 높임 표현은 '여쭙다/여쭙다, 드리다' 등과 같은 몇몇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에 의해 실현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0.

해설

피동문의 유형 분류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ㄱ의 '읽힌다'에는 접사 '-히-'가, ㄴ의 '들려'에는 접사 '-리-'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둘은 파생적 피동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ㄴ의 '궁여졌다'는 '-어지다'가 붙어 있으므로 통사적 피동에 해당하고, ㄷ의 '당하다'는 말 자체에 피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휘적 피동에 해당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1.

82.

해설

문장 종결 표현 파악

각 예문에 해당하는 문장 종결 표현을 골라 바르게 연결해 보자.

이 문제는 제시된 예문에 사용된 문장 종결 표현을 고르는 문제이다. 국어의 문장은 종결의 표현 방식에 따라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으로 나뉜다.

[문제 풀이 방법]

① - ㉠ 형, 그렇게 무리하다가 병나겠어.
→ ㉠은 청자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평서문이다. 평서형 종결 어미인 '-어'가 쓰였다.

② - ㉡ 철수는 노래도 잘 부르는구나.
→ ㉡은 철수가 노래를 잘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문이다. 감탄형 종결 어미인 '-구나'가 쓰였다.

③ - ㉢ 다음 열차는 몇 시에 도착합니까?
→ ㉢은 청자에게 열차의 도착 시간에 대한 질문을 하여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의문문이다. 의문형 종결 어미인 '-니까'가 쓰였다.

④ - ㉣ 집에 일찍 들어가라.
→ ㉣은 청자에게 집에 일찍 들어가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문이다. 명령형 종결 어미인 '-아라'가 쓰였다. '아'는 어간 '가-'의 모음 'ㅏ'와 같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다.

⑤ - ㉤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 ㉤은 청자에게 화자와 자주 보는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청유문이다. 청유형 종결 어미인 '-자'가 쓰였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3.

해설

어법에 맞는 표현 이해

작은 과정에서 표현을 하다 보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문장 성분의 호응이나 생략의 오류, 이중 사동의 오류, 이중 피동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 '되어지다' 부분은 '-되다', '-어지다'의 피동 표현이 중복 사용된 이중 피동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의 '밝혀지게 되었다' 도 마찬가지로 '-어지다', '-게 되다'의 피동 표현이 중복 사용되었으므로 같은 종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식탁에서 서재로 옮기고 있는'은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다.
② '이 작품의 주제는 ~ 그랬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다.
③ '정지시키게 했다'라는 표현은 '-시키다', '-게 했다'의 사동 표현이 중복 사용된 문장으로 이중 사동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다.
④ '절대로'라는 부사와 '읽어야 한다'라는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4.

해설

피동 표현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사건의 진실이 김 형사에 의해 밝혀졌다.'에서 '밝혀졌다'는 용언의 어간 '밝히-'에 피동 표현을 만드는 '-어지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종결 어미 '-다'가 결합된 단어이다. 그러므로 '밝혀졌다'는 용언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와 피동 표현을 만드는 '-어지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에서 '안겼다'는 용언의 어간 '안-'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것이고 '토끼 한 마리가 포수 열 명에게 잡아졌다.'에서 '잡아졌다'는 용언의 어간 '잡-'에 피동 표현을 만드는 '-어지다'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용언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를 함께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든 예는 <보기>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와 '김 형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혔다.', '포수 열 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는 각각 '아기를', '진실을', '마리를'과 같이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며 피동문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목적어를 가지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김 형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혔다.', '포수 열 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의 주어에 해당하는 말 '엄마', '김 형사', '열 명'은 피동문에서 '엄마에게', '김 형사에', '열 명에게'와 같이 부사격 조사 '에게', '에'가 붙어 있다.

④ '포수 열 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의 경우는 '포수 열 명이 모두 함께 토끼 한 마리만을 잡다.'와 '포수 열 명이 각각 토끼 한 마리씩 잡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피동문으로 바뀔 경우 첫 번째 의미만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을 통해서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경우에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는 엄마의 행위로 아기가 엄마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하고, '사건의 진실이 김 형사에 의해 밝혀졌다.'는 사건의 진실이 김 형사의 행위로 인해 드러나게 된 것을 의미한다. '토끼 한 마리가 포수 열 명에게 잡아졌다.'는 토끼가 포수 열 명에게 잡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통해서 피동문의 주어는 주체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동 표현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5.

해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구분

(가)를 참고할 때 (나)의 대화에서 ㉠~㉣의 기본형 '들다'가 국어사전에서 나머지 넷과 다른 표제어로 처리되는 것은?

이 문제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동사 '들다'의 다양한 용례를 보고, 그 용례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의어는 사전에서 하나의 표제어로 처리하며, 동음이의어는 사전에서 각각을 별개의 표제어로 처리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

→ ㉠의 의미는 '날이 날카로워 물건이 잘 베어지다.'라는 뜻으로, '들다'의 예에 해당한다. 따라서 ㉡~㉣와 별개의 단어(표제어)로 처리한다. 즉 ㉠은 ㉡~㉣와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 ㉤는 모두 서로 연관된 의미를 나타내는 다의 관계에 있는 말이다.

② ㉡

→ ㉡의 의미는 '어떤 일에 시간 따위가 쓰이다.'의 뜻으로, '들다'의 예에 해당한다.

③ ㉢

→ ㉢의 의미는 '어떤 일에 돈, 물자 따위가 쓰이다.'의 뜻으로, '들다'의 예에 해당한다.

④ ㉣

→ ㉣은 '의식이 회복되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의 뜻으로, '들다'의 예에 해당한다.

⑤ ㉤

→ ㉤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지다.'라는 뜻으로, '들다'의 예에 해당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6.

해설

반의 관계의 양상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길다/짧다'는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어에 해당한다. '길다'와 '짧다'는 동시 부정이 가능하며 중간 지대가 존재한다. '길지 않다/짧지 않다'가 가능하고 '길지도 짧지도 않다'가 가능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달다'와 '쓰다'는 동시 부정이 가능하며 중간 지대가 존재한다. '달지 않다/쓰지 않다'가 가능하고 '달지도 쓰지도 않다'가 가능한 것이다.

② '덥다'와 '춥다'는 동시 부정이 가능하며 중간 지대가 존재한다. '덥지 않다/춥지 않다'가 가능하고 '덥지도 춥지도 않다'가 가능한 것이다.

③ '살/죽음'의 경우 '살'과 '죽음'을 동시에 긍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살'과 '죽음'으로 완전히 쪼개진다.

⑤ '들어간다/나오다'는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낸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나) 국어의 구조

⑤ 의미

㉠ 단어의 의미 유형과 단어 간 의미 관계, 의미 변화의 양상을 이해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7.

해설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첫 번째 예문의 '다리'는 '몸을 지탱하는 길쭉한 신체 부분'을 의미하고, 두 번째 예문의 '다리'는 '아래쪽에 붙어서 물체를 받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단어는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 다의 관계에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첫 번째 예문의 '차다'는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를 의미하고, 두 번째 예문의 '차다'는 '발로 내어 지르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② 첫 번째 예문의 '훑치다'는 '남의 물건을 남몰래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를 의미하고, 두 번째 예문의 '훑치다'는 '물기나 때 따위가 묻은 것을 닦아 말끔하게 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③ 첫 번째 예문의 '배'는 '신체 일부'를 의미하고, 두 번째 예문의 '배'는 '운송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④ 첫 번째 예문의 '들다'는 '날이 날카로워 잘 베어지다.'를 의미하고, 두 번째 예문의 '들다'는 '빛, 별, 물 따위가 안으로 들어오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8.

해설

중의성 해소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중의문의 의미를 파악하여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항이다. c를 몇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부분 부정의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지' 뒤에 '는'을 붙이면 된다. 주어진 문장에서 '않았다.'를 '못했다.'로 바꾸고 해도 몇 사람은 오지 않았다는 부분 부정의 의미를 표현할 수는 없다. '안' 부정문은 단순 부정이나 주체의 의도 때문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것인 반면, '못' 부정문은 주로 주체의 무능력이나 외부의 원인 때문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관형격 조사 '의'의 의미가 불명확해서 중의성이 생긴 경우이다. 아버지가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가 그려진 그림인지, 아버지가 가진 그림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로 확정하려면 '이것은 아버지를 그린 그림이다.'로 바꾸면 된다.

② b는 조사 '와'에 의해 두 문장 성분이 결합하면서 생기는 중의성이 문제가 된다. 내 친구가 그녀와 올해 결혼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 내 친구도 결혼하고 그녀도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올해 둘이 서로 결혼했다는 의미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내 친구가 그녀와 올해 결혼하였다.'로 수정하면 된다.

④ d는 의존 명사 구문의 불명확성 때문에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그가 웃는 모습이 이상한 것인지, 그가 웃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가 웃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의미로 확정하려면 '그가 웃는다는 것이 이상하다.'로 수정하면 된다.

⑤ e는 수식 구조의 중의성이 나타나는 문장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은 것인지, 그녀의 표정이 밝은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녀의 표정이 밝다는 의미로 확정하려면 '그녀는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로 수정하면 된다.

출제 근거

해설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나) 국어의 구조

⑤ 의미

㉠ 문장, 담화의 다양한 의미 생성 방식을 탐구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89.

해설

동음이의어의 의미 분석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확인 1] '부르다¹'과 '부르다²'의 활용 특성

'부르다¹'과 '부르다²'는 '불러', '부르니' 등으로 활용한다.

[확인 2] 어간 형태의 변화 여부에 대한 판단

'부르다'가 '불러'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부르다'의 어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③과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확인] '부르다¹'과 '부르다²'

'부르다¹'은 동사에 속하고 '부르다²'는 형용사에 속한다. 둘은 서로 다른 표제어에 해당하는 말로서 소리는 같은데 의미는 다르다. 그러므로 둘은 동음이의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②[확인] '부르다¹'의 문장 구조

'부르다¹'은 '~을', '~을 ~에', '~을 ~으로', '~을 ~고' 등의 문장 구조로 사용되는 말이다. 이때 공통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④[확인] 다의어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다의어라 한다. '부르다¹'과 '부르다²'는 모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닌다.

⑤[확인] '배가 부른 항아리가 놓여 있다.'에서 '부르다'의 의미

'배가 부른 항아리가 놓여 있다.'에서 '부르다'는 '불룩하게 부풀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부르다²' 「2」의 뜻에 해당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0.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 '얼굴에 생기가 돈다.'의 '돌다'는 '어떤 기운이나 빛이 겉으로 나타나다.'라는 뜻을 지닌다. 따라서 이때의 반의어는 '어떤 상태가 없어지거나 달라지다.'의 뜻을 지니는 '가시다'가 적절하다. ①, ②에 제시된 '띠다'는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의 뜻을 지녀 오히려 유의어에 가깝다.

㉡에서 '머물다'가 반의어가 될 수 있는 '돌다'가 쓰인 것은 ①, ④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의 '돌다'는 '생각이나 노선을 바꾸다.'의 뜻이고 ④의 '돌다'는 '불일로 이곳저곳을 다니다.'의 뜻을 지니기 때문이다. ②의 '돌다'는 '어떤 장소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다.'의 뜻을 지니며 '멈추다'가 반의어가 될 수 있다. ③의 '돌다'는 '기능이나 체제가 제대로 작용하다.'의 뜻을 지니며 역시 '멈추다'가 반의어가 될 수 있다. ⑤의 '돌다'는 '길을 끼고 방향을 바꾸다.'의 뜻을 지니며 '직진하다'가 반의어가 될 수 있다.

㉢에서 '한참을 돌아서 가다.'의 '돌다'는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비껴 가다.'라는 뜻을 지닌다. 따라서 이때의 반의어는 '지름길로 가깝게 가다.'의

해설

뜻을 지니는 '지르다'가 적절하다. ①, ③, ⑤의 '가르다'는 '나누다, 구분하다, 승부를 정하다' 등의 뜻을 지녀 '돌다'의 반의어가 되기 어렵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1.

해설

국어사전의 내용 파악

다음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이 문제는 국어사전에 수록된 문법 정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국어사전에 실린 발음, 품사, 문장 구조, 의미 풀이 등에 대한 정보 표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고 있어야만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말다¹'과 '말다²'가 쓰인 문장은 나타나는 조사가 동일하다.

→ '말다¹'과 '말다²'의 문장에 쓰이는 조사를 보면, '말다¹'은 '을, 에, 으로'가 쓰이지만 '말다²'는 '으로'가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말다¹'과 '말다²'가 쓰인 문장은 동일한 조사가 나타난다고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말다¹'과 '말다²'는 품사와 발음이 일치한다.

→ 사전에 제시된 정보를 보면 '말다¹'과 '말다²'는 모두 동사이며 뒤에 오는 어미에 따라 발음이 바뀌는 양상도 동일하다.

② '말다¹'은 다의어이지만 '말다²'는 다의어가 아니다.

→ '말다¹'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다의어이지만 '말다²'는 하나의 의미만 가지므로 다의어가 아니다.

③ '말다¹'과 '말다²'는 서로 동음이의어의 관계에 있다.

→ '말다¹'과 '말다²'는 독립된 표제항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다.

⑤ '말다¹'과 '말다²'는 모두 주어 이외에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 있다.

→ '말다¹'과 '말다²'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2.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들어서다', '들어오다'는 '밖에서 안쪽으로 옮겨 서다(들어서다)',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다(들어오다)' 등으로 '들다¹'㉠의 뜻을 살리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나누는 것은 하나의 표제 단어 안에서 다의어 관계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며, 대개 번호가 앞인 것이 중심적 의미, 뒤의 것이 주변적 의미이다. 표제어 번호가 별개인 것은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라고 할 수 있다.

③ '전국에 풍년이 들다'에서 쓰인 '들다'의 의미는 '어떤 일이나 기상 현상이 일어나다'의 뜻으로 '풍년이 들다, 한파가 들다, 가뭄이 들다' 등을 생각

해설

할 수 있으며, 이는 제시된 예문의 '들다1'㉠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들다2'㉡ 뜻의 유의어로는 '가지다, 쥐다' 정도를 제시할 수 있겠으나, '올리다'는 들어맞지 않는다. 만약 '역기를 들다, 손을 들다'에 쓰인 '들다'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면 '올리다'를 유의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⑤ '들다1'의 속담은 '들다'와 '나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나, '들다2'의 속담에 쓰인 '나다'는 '일을 마치고 나니'와 같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으로서 뜻이 다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3.

해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갈다² ㉠의 뜻
 '자면서 뾰드득뾰드득 이를 갈다.'의 '갈다'는 '윗니와 아랫니를 맞대고 문질러 소리를 내다.'라는 뜻으로, '갈다²' ㉠과 서로 뜻이 다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갈다¹, 갈다², 갈다³은 동음이의어 관계
 '갈다¹', '갈다²', '갈다³'은 발음이 같을 뿐 별개의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② [확인] 갈다¹ ㉡의 뜻
 '컴퓨터의 부속품을 새 것으로 갈았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갈다¹' ㉡은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의 뜻으로 볼 수 있다.
 ③ [확인] 갈다² ㉠의 용례
 '숫돌에 칼을 갈았다.'에서 '갈다'는 '날을 날카롭게 세우기 위해 숫돌에 대고 문지르다.'라는 의미이므로, '갈다²' ㉠의 용례로 볼 수 있다.
 ⑤ [확인] 갈다³ ㉢의 유의어
 '일구다'는 '논밭을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파서 일오키다.'라는 뜻이므로, '갈다³' ㉢의 유의어로 사용할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4.

해설

반의 관계의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는 X가 Y의 남편이면 Y는 X의 아내가 되므로 반의 관계 중 상대 관계가 성립된다. ㉠ 역시 X가 Y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Y는 X가 주는 무엇인가를 받는 관계가 되므로 반의 관계 중 상대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과 ㉡는 모두 반의 관계 중 상대 관계를 이루는 유형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는 공통된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성(性)'이라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상반되므로 반의 관계가 성립된다.
 ② ㉢는 두 단어 사이에 중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의 관계 중 모순 관계가 성립된다.
 ③ ㉣는 두 단어 사이에 중간 개념이 존재하므로 반의 관계 중 반대 관계가 성립된다.
 ④ ㉤의 '서다'는 다의어로,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앉다'와 반의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다.'의 의미를 지닐 때는 '가다'와 반의 관계를 이룬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5.

해설

의미 유형 및 의미 관계에 관한 탐구
 [정답이 정답인 이유]
 '농부가 낫으로 잔가지를 쳐 냈다.'는 '날이 있는 물체를 이용하여 물체를 자른다.'라는 의미의 용례가 된다. 그러므로 '치다2' ㉠의 용례로 추가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가리키며, 사전에서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된다.
 ② '때리다'는 '손이나 손에 든 물건 따위로 아프게 치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치다1'의 ㉡의 의미와 유사하다.
 ③ '맞다'는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가해져 몸에 해를 입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치다'의 속담에서 '치다'는 '요구하다', '맞다'는 '요구당하다'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치다'와 '맞다'는 반의 관계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④ '치다2' ㉠은 '가축이나 가금 따위를 기르다.'라는 뜻이므로, 대상이 가축이나 가금이다. 따라서 '아이'를 대상으로 하여 '치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없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6.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눈 깜짝할 사이'는 '매우 짧은 순간'의 뜻을 지니는 관용구이지만, 이때 시간으로서의 의미는 전체 관용구가 지니는 것이지 '눈'이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때의 '눈'은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적 범주로 확장되어 쓰임을 보여 주는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신체의 일부인 '고개'를 가리키기 때문에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② '다리가 의자라는 사물의 범주로 확장되어 쓰이기 때문에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③ '허리가 한반도의 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공간적 범주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⑤ '손'이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추상적 범주 ㉤의 사례로 적절하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7.

해설

반의어의 종류 파악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1] '반의어'의 개념
 반의어는 그 뜻이 서로 정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말로, 한 쌍의 말 사이에 서로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있어야 한다.
 [확인 2] '모순 개념'의 의미
 반의어 중 중간적 존재가 없는 것을 '모순 개념'이라고 한다. 그런데 '흰색'과 '검은색'은 중간에 '회색' 등 수많은 색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중간적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대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해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1] '선언 개념'의 의미

선언 개념은 개념들 사이에 서로 겹침이 없이 쌍을 이루는 것이다.

[확인 2] '선언 개념'의 적용

'생물'과 '무생물'은 서로 침범하지 않고 겹치지 않는 선언 개념의 반의어이다.

② [확인 1] '상관 개념'의 의미

상관 개념은 개념들 사이의 상호 의존도가 큰 것을 말한다.

[확인 2] '상관 개념'의 적용

'남편'과 '아내'는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상호 관련성이 강한 상관 개념의 반의어이다.

③ [확인 1] '상대 개념'의 의미

상대 개념은 개념들 사이의 상호 의존도가 작은 것을 말한다.

[확인 2] '상대 개념'의 적용

'물'과 '불'은 상대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작은 것으로 상대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상대 개념의 반의어이다.

⑤ [확인 1] '반대 개념'의 의미

반대 개념은 중간적 존재가 있는 것을 말한다.

[확인 2] '반대 개념'의 적용

'길다'와 '짧다'는 중간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반대 개념의 반의어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8.

해설

중의적 표현의 이유 추론

<보기>의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제시된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이유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중의성이 생기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그중 제시된 문장이 어떤 이유로 중의성을 가지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ㄴ : '주셨다'의 대상이 '사과'인지 '귤 두 개'인지 분명하지 않아 생긴 중의적 표현이다.

→ ㄴ에서 접속 조사 '와'가 '사과'와 '귤'을 접속할 수도 있고, '사과'와 '귤 두 개'를 접속할 수도 있다. 즉 ㄴ은 접속 조사 '와'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지 접속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생긴 중의적 표현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 : '보다'를 통해 비교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생긴 중의적 표현이다.

→ ㄱ은 '오빠'와 '언니'를 비교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언니'와 '나'를 비교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ㄱ은 '보다'를 통해 비교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생긴 중의적 표현이다.

③ ㄷ : 동음이의어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생긴 중의적 표현이다.

→ ㄷ에서 '배'는 동음이의어로, '과일[梨]'을 뜻할 수도 있고, '운송 수단[舟]'을 뜻할 수도 있다. 즉 ㄷ은 동음이의어 '배'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생긴 중의적 표현이다.

④ ㄹ : '웃으면서'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아 생긴 중의적 표현이다.

→ ㄹ에서 '웃으면서'는 '정원'의 서술어일 수도 있고 '들어오는'을 꾸며 주어 '손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다. 즉 ㄹ은 '웃으면서'의 주체가 정원인지 손님인지 분명하지 않아 생긴 중의적 표현이다.

⑤ ㅁ : 대명사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생긴 중의적 표현이다.

→ ㅁ에서 지시 대명사 '그것'은 앞 절의 '보석'을 가리킬 수도 있고, '보석을

해설

가지고 온 사실'을 가리킬 수도 있다. 즉 ㅁ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생긴 중의적 표현이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99.

해설

문맥에 따른 반의 관계의 변화 추론

(가)를 바탕으로 (나)의 ㉠~㉢에 들어갈 말을 채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반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당 단어가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 - 들다

→ '병이 나다'의 반의어는 '병이 낫다'이다. 따라서 '나다'와 반의 관계를 이루는 말로 ㉠에 '낫다'를 채워야 한다. '들다'는 '나다'와 반의 관계를 이루지만 '병이 들다'는 '병이 나다'와 유의 관계를 이루는 말이므로 ㉠에 '들다'를 넣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 - 깨다

→ '적금을 들다'의 반의어로는 '적금을 깨다' 또는 '적금을 해지하다' 정도가 있다. 따라서 '들다'와 반의 관계를 이루는 말로 ㉡에 '깨다'를 채워 넣을 수 있다.

② ㉢ - 짧다

→ '생각이 깊다'의 반의어로는 '생각이 짧다' 또는 '생각이 없다' 정도가 있다. 따라서 '깊다'와 반의 관계를 이루는 말로 ㉢에 '짧다'를 채워 넣을 수 있다.

④ ㉣ - 없다

→ '겉이 많다'의 반의어로는 '겉이 없다' 정도가 있다. 따라서 '많다'와 반의 관계를 이루는 말로 ㉣에 '없다'를 채워 넣을 수 있다.

⑤ ㉤ - 풀다

→ '한을 품다'의 반의어로는 '한을 풀다' 또는 '한을 씻다' 정도가 있다. 따라서 '품다'와 반의 관계를 이루는 말로 ㉤에 '풀다'를 채워 넣을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0.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난관(難關)'은 '어려운 고비'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어려운'과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어려운 난관'은 중복된 표현의 사례이다.

㉡의 '여생(餘生)'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남은'과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남은 여생'은 중복된 표현의 사례이다.

㉢의 '숙원(宿願)'은 '오래전부터 품어 온 염원이나 소망'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오랜'과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오랜 숙원'은 중복된 표현의 사례이다.

㉣의 '소견(所見)'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짧은 소견'이라고 써도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다.

㉤의 '답사(踏査)'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미리 답사하다'라고 써도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1.

해설

중의성이 생기는 원인 파악

위에 제시된 문장들의 의미가 중의성을 띠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원인을 묻는 문제이다. 중의성이 생기는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중의적인 문장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 :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사과'만인지 '자두와 사과'인지 불분명하다.

→ ㉠은 접속 조사 '와'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지 접속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서 발생한 중의문이다. 즉 접속 조사 '와/과'로 묶이는 것이 '자두'와 '사과'인지 '자두'와 '사과 두 개'인지 '자두 두 개'와 '사과 두 개'인지가 불분명하다. 어느 경우든 '자두와 사과'는 둘 다 분명하게 '주다'의 목적어로 해석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 : '않다'가 '다 오다'를 부정하는지 '오다'만을 부정하는지 불분명하다.

→ ㉡은 '않다'가 '다 오다'를 부정하는지 '오다'만을 부정하는지 불분명하다. 즉 친구들이 일부만 오지 않은 것(부분 부정)인지 한 명도 오지 않은 것(전체 부정)인지 불분명하다.

② ㉢ : '남편'과 '내'가 '딸'을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하고 있는지 '나'와 '딸'을 비교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 ㉢은 비교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생긴 중의문이다. 즉 '딸을 좋아하는 주체'에 대해 '남편'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지, '남편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 '나'와 '딸'을 비교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④ ㉣ : '아름다운'이 '그녀'를 꾸미는지 '미소'를 꾸미는지 불분명하다.

→ ㉣은 꾸미는 말과 꾸미를 받는 말이 분명하지 않아 생긴 중의문이다. 즉 '아름다운'이 '그녀'를 꾸미는지 '미소'를 꾸미는지 불분명하다.

⑤ ㉤ : '웃으면서'가 '그는'의 서술어로 쓰인 것인지 '이웃'을 꾸미는 관형절 속에서 쓰인 것인지 불분명하다.

→ ㉤은 '웃으면서'가 '그는'의 서술어로 쓰인 것이라면 '그'가 웃었다는 뜻이 되고 '이웃'을 꾸미는 관형절 속에서 쓰인 것이라면 '이웃'이 웃었다는 뜻이 된다.

힌트

문장의 중의성으로는 수식의 중의성, 비교 구문의 중의성, 병렬 구문의 중의성, 부정문의 중의성 등이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2.

해설

중의성 해소 방안의 적절성 평가

㉠~㉣의 문장을 다듬어 중의성을 해소하려고 한다. 적절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고쳐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중의성이 생기는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중의적인 문장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 : 나는 남편보다 딸을 좋아한다.

해설

→ ㉠은 비교의 대상이 '남편과 나'인지 '나와 딸'인지 불분명한 문장이다. 따라서 '남편은 내가 딸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딸을 좋아한다.' 또는 '남편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딸을 좋아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에는 여전히 '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정도보다 딸을 좋아하는 정도가 더하다.'라는 뜻과 '남편이 딸을 좋아하는 정도보다 내가 딸을 좋아하는 정도가 더하다.'라는 뜻의 중의성이 남아 있다. 또한 ㉡는 ㉠과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의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 : 친구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 보조사 '은/는'을 적절한 위치에 넣어 부분 부정의 뜻으로만 읽힌다.

③ ㉢ : 할머니께서 자두 한 개와 사과 한 개를 주셨다.

→ 자두와 사과의 개수를 따로 말함으로써 개수의 중의성을 해소했다.

④ ㉣ :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가 날 설레게 한다.

→ 꾸미는 말인 '아름다운'이 꾸미를 받는 말인 '미소'에 가깝도록 어순을 교체하여 중의성을 해소했다.

⑤ ㉤ : 그는 마주 오는 이웃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

→ '웃으면서'를 '그'의 서술어로 한정하여 씬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했다.

힌트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의적 대상을 분명하게 밝혀 주거나, 어순을 바꿔 의미를 명확히 표현해 주어야 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3.

해설

방언의 종류 구분

다음은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해 보자.

이 문제는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지역적 차이에 의해 생겨난 방언 차이와 사회적 변수에 의해 생겨난 방언 차이를 구분하면 된다.

[문제 풀이 방법]

지역 방언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생긴 방언을 말한다. 반면 사회 방언은 연령, 계층, 성별 등과 같은 차이 때문에 생긴 방언을 말한다. (1)을 보면 방언 차이가 10대와 80대라는 연령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사회 방언에 해당한다. (2)에서는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이 방언 차이를 야기했으므로 지역 방언에 해당한다. (3)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이 방언 차이를 만들었으므로 사회 방언에 속한다. (4)는 지역에 따라 같은 대상의 명칭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지역 방언에 속한다.

힌트

각각에서 말의 차이를 일으키는 것이 지역적 차이인지 성별, 계층, 연령과 같은 사회적 차이인지 생각해 본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4.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다만 3'에서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음절의 '니'를 [|]로만 발음할 것

해설

을 규정하고 있다. '씩꿘다'의 '씩'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음절이기 때문에 [씩]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씨]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다만 1'에 따르면, 용언 '찌다'의 활용형 '찌서(찌어서)'는 [찌서]가 아니라 [찌서]로 발음해야 한다.
- ② '다만 2'에 따르면, '주례사'의 '례'는 [례]로 발음하지 않고 표기대로 [례]로 발음해야 한다.
- ④ '다만 4'에 따르면, '거의'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ㅣ]로도 발음할 수 있다. 또한 '다만 3'을 고려할 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는 [거의]와 [거이]로 모두 발음할 수 있다.
- ⑤ '다만 4'에 따르면, '우리의'의 '의'는 관형격 조사이기 때문에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5.

해설

발음 규정 이해, 적용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확인 1] 제14항 규정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확인 2] '닭울'의 발음

'닭울'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로,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달글]로 발음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확인 1] 제15항 규정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확인 2] '겉웃'의 발음

'겉웃'은 받침 뒤에 모음 'ㅗ'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로,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거돋]으로 발음한다.

③[확인 1] 제13항 규정

출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확인 2] '웃이'의 발음

'웃이'는 출받침 'ㅍ'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이'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자기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오시]로 발음한다.

④[확인 1] 제15항 [붙임] 규정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나, [붙임]에 따라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확인 2] '값어치'의 발음

'값어치'는 겹받침이 모음 'ㅏ'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와 연결되는 경우로, 겹받침 중 하나만을 옮겨 [가버치]로 발음한다.

⑤[확인 1] 제16항 규정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디글을[디그슬] 지읒을[지으슬] 치읓을[치으슬] 키읓을[키으글] 티읓을[티으슬] 피읓을[피으블] 히읓을[히으슬]로 발음한다.

[확인 2] '디글은'의 발음

'디글은'은 [디그슨]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6.

해설

표준 발음법의 적용

(가)에 제시된 발음 오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나)에서 골라 보자.

이 문제는 흔히 나타나는 발음 오류가 어떤 사항을 위배했는지를 묻고 있다. (가)에 제시된 발음이 (나)에 제시된 사항 중 어떤 것과 관련되는지를 연관 지을 수 있어야 한다.

[문제 풀이 방법]

(가)의 ㄱ은 '[출기], [출글]'로 발음하는 것이 옳은데도 '[호기], [호글]'로 잘못 발음한 경우이다. 이것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나는 연음의 원리를 위배한 것이므로 (나)의 e와 관련이 있다. (가)의 ㄴ은 '[널따], [널꼬]'를 '[넙따], [넙꼬]'로 잘못 발음한 경우이다. 겹받침이 음절 종성에 놓이면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해야 하는데 어떤 자음이 탈락할지는 명확히 정해져 있다. '넙-'과 같이 겹받침이 'ㄹ'인 경우에는 'ㄹ'이 탈락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가)의 ㄴ은 (나)의 a와 관련이 있다. (가)의 ㄷ은 원래 '[해님]'이라고 발음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햐님]'으로 발음하며 표기도 '햐님'으로 잘못 하고 있다. '-님'이 접미사인 이상 '해님'은 파생어이므로 여기에는 사이시옷도 표기할 수 없고 사잇소리 현상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가)의 ㄷ은 (나)의 b와 관련이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7.

해설

표준 발음 추론

(가)의 ㄱ, ㄴ, ㄷ을 올바른 발음으로 고친 결과가 모두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제시된 발음 오류를 올바르게 고치도록 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발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나)에 제시된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ㄱ. [출기], [출글], ㄴ. [널따], [널꼬], ㄷ. [햐님]

→ ㄱ의 '[호기], [호글]'은 연음의 원칙을 어겼으므로 연음을 시킨 '[출기], [출글]'이 옳바르다. ㄴ은 겹받침 'ㄹ' 중 'ㄹ'을 탈락시켜야 하므로 '[널따], [널꼬]'가 옳바르다. ㄷ의 '햐님'은 사잇소리 현상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표기 그대로 '[해님]'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 [출기], [출글], ㄴ. [넙따], [넙꼬], ㄷ. [햐님]

→ ㄴ의 '[넙따], [넙꼬]'는 '[널따], [널꼬]'가 옳으며, ㄷ의 '[햐님]'은 '[해님]'이 옳다.

② ㄱ. [호키], [호글], ㄴ. [널따], [널꼬], ㄷ. [햐님]

→ ㄱ의 '[호키], [호글]'은 '[출기], [출글]'이 옳다.

③ ㄱ. [호키], [호글], ㄴ. [넙따], [넙꼬], ㄷ. [햐님]

→ ㄱ의 '[호키], [호글]'은 '[출기], [출글]'이 옳으며, ㄴ의 '[넙따], [넙꼬]'는 '[널따], [널꼬]'가 옳다.

④ ㄱ. [출기], [출글], ㄴ. [널따], [널꼬], ㄷ. [햐님]

→ ㄷ의 '[햐님]'은 '[해님]'이 옳다.

힌트

(가)의 ㄱ은 연음의 적용 여부, ㄴ은 겹받침에서 탈락하는 자음의 종류, ㄷ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과 관련이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8.

해설

표준 발음법의 이해와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제시된 표준 발음법의 <보충 해설>에 따르면, '-(으)ㄹ' 다음에 오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보조 용언일 경우에도 역시 그 다음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 '올 듯하다'는 [올뜨타다]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시된 표준 발음법에서는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할 도리'의 표준 발음은 [할뜨리]가 맞다. 그러나 끊어서 발음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할 도리]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② 제시된 표준 발음법에서는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먹을 게'는 [머글게]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④ 제시된 표준 발음법의 <보충 해설>을 보면,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던' 등 'ㄴ' 받침을 가진 어미 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 사람'은 [간사람]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⑤ 제시된 표준 발음법에서는 관형사형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연결되더라도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할 것을'에서 '것을'은 '할'과 '것을'을 끊어서 말할 경우 [거술]로 발음해야 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9.

해설

한글 맞춤법 규정의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사이어', '보이어', '누이어', '뜨이어'는 'ㅅㅏ--ㅏ--ㅏ--어', '보--ㅏ--ㅏ--어', '누--ㅏ--ㅏ--어', '뜨--ㅏ--ㅏ--어'로 분석할 수 있다. 원리 도출에 비추어 볼 때, '싸어, 싸어(ㄱ), '보어, 보어(ㄴ), '누어, 누어(ㄷ), '뜨어(ㄹ)로 줄여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ㄹ, '뜨어'를 [띠어] 또는 [띠어]로 발음하지만, '띠어'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띄어쓰기, 띄어 쓰다, 띄어 놓다'의 경우에는 관용상 '뜨여쓰기, 뜨여 쓰다, 뜨여 놓다' 같은 형태가 사용되지 않는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I (1) 국어와 규범 (나) 올바른 단어 사용

①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0.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해설

'읽고', '읽기', '읽고'에서 'ㄱ' 앞이라는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읽다[익따]', '읽지[익찌]'의 예를 고려하면, 용언 어간의 겹받침 'ㄹ'이 모든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시된 예를 통해 국어의 모든 받침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만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여덟'에서 어말이라는 조건을, '넓다'와 '넓고'에서 자음 앞에서라는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③ '밥-'의 경우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된다.

④ '흙'에서 어말이라는 조건을, '읽다', '읽지', '흙과'에서 자음 앞이라는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1.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따르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에서'가 결합한 '부엌에서'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부어케서]로 발음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엌'도 [부어키]로 발음해야 한다. 또한 제15항에 따르면 'ㅌ'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안'과 연결된 '부엌 안'은 'ㄴ'을 대표음 [ㄱ]으로 바꾸어서(제9항)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부어간]으로 발음해야 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2.

해설

표준 발음법의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유희'에서 '니'는 '다만 3'에 의거하여 [니]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유희]로 발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전자시계'에서 '시계'는 [시계]로 발음해야 하지만, '다만 2'에 의거하여 [시계]로 발음해도 옳다.

② '민주주의'에서 '주의'는 [주의]로 발음해야 하지만, '다만 4'에 의거하여 [주이]로 발음해도 옳다.

④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는 [우리의]로 발음해야 하지만, '다만 4'에 의거하여 [우리에]로 발음해도 옳다.

⑤ '가져갈 물건'에서 '가져'는 [가져]로 발음해서는 안 되고, '다만 1'에 의거하여 [가저]로 발음해야 옳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I (1) 국어와 규범 (가) 정확한 발음

①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3.

해설

표준 발음법의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해설

'부엌'의 '억'은 표준 발음법 제9항에 의해 [억]으로 바뀐 후, 표준 발음법 제15항에 따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부어간]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표준 발음법 제9항에 의해 대표음으로 바뀐 후, 제15항에 따라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경우들이므로, ② '밭 아래'는 [바다래]로, ③ '꽃 안'은 [꼬안]으로, ④ '젓머미'는 [저더미]로, ⑤ '늪 앞'은 [느밤]으로 발음해야 한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I (1) 국어와 규범 (가) 정확한 발음

①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4.

해설

표준 발음 규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12-1'의 '붙임'을 보면, 'ㅂ' 뒤에 'ㅎ'이 결합되는 경우에 두 음을 합쳐서 'ㅃ'으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입학'의 발음은 [이팍]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2-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ㄴ' 뒤에 'ㄷ'이 결합되어 [ㄷ]으로 발음한다.
- ③ '12-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는 [ㄴ]으로 발음한다.
- ④ '12-2'의 '붙임'을 보면, 'ㄷ' 뒤에서는 'ㄴ'이 [ㄷ]로 발음된다.
- ⑤ '12-3'에서 알 수 있듯이, 'ㄴ'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은')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5.

해설

남북한 사전의 특성 파악

(ㄱ)은 남한과 북한 사전의 자모음 배열 순서이다. 이를 참고하여 (ㄴ)의 단어들을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사전 배열 순서의 차이를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된 자음자와 모음자의 배열 순서를 이해하여 네 단어를 정확히 배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남한) 깨, 이름, 행동, 향기, (북한) 향기, 행동, 깨, 이름
→ 제시된 배열 순서에 따르면 남한은 단어의 첫머리가 'ㄱ, ㅇ, ㅎ' 순이어야 하고 모음자는 'ㅏ, ㅑ'의 순이어야 한다. 따라서 '깨, 이름, 행동, 향기'의 순서가 옳다. 북한의 경우 단어의 첫머리가 'ㅎ, ㄱ, ㅇ'의 순이어야 하고 모음자는 'ㅑ, ㅏ'의 순이어야 한다. 따라서 '향기, 행동, 깨, 이름'의 순서로 배열해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남한) 깨, 이름, 행동, 향기, (북한) 향기, 행동, 이름, 깨
→ 남한은 배열 순서가 맞지만 북한은 '깨'와 '이름'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 ③ (남한) 깨, 이름, 행동, 향기, (북한) 향기, 이름, 깨, 행동

해설

→ 남한은 배열 순서가 맞지만 북한은 '이름'과 '행동'의 위치가 바뀌어야 옳다.

- ④ (남한) 이름, 향기, 행동, 깨, (북한) 향기, 이름, 깨, 행동
→ 남한은 '깨'를 '이름' 앞에 놓고 '향기'와 '행동'의 위치를 바꾸어야 하며, 북한은 '이름'과 '행동'의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
- ⑤ (남한) 이름, 향기, 행동, 깨, (북한) 향기, 행동, 깨, 이름
→ 남한은 '깨'를 '이름' 앞에 놓고 '향기'와 '행동'의 위치를 바꾸어야 하며, 북한은 배열 순서가 옳바르다.

힌트

중세 국어에서 '많다'의 의미를 가진 '하다'는 오늘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6.

해설

남한과 북한의 어문 규정 비교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밭다'와 같이 받침 'ㄹ' 뒤에 어미가 오는 경우는 남한이나 북한 모두 소리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밭따]로 발음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넓지'의 경우 받침 'ㄹ' 뒤에 어미가 오는 경우이지만, 남한에서는 [널찌]로 발음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널찌]로 발음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값도'는 남한의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의해 [갑또]로 발음해야 하고, 북한의 '문화어발음법' 제9항 두 번째 항목에 의해 [갑또]로 발음해야 한다.
- ② 남한의 '표준 발음법' 제10항과 북한의 '문화어발음법' 제9항은 모두 겹받침을 각각 특정한 자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조항이다.
- ④ 남한의 '표준 발음법'의 예)에는 긴소리에 대한 표시가 드러나 있으나, 북한의 '문화어발음법'의 '례'에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문화어발음법'에 원래 장음 표시가 없는 것인지, 제시된 자료에 단음만 제시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 ⑤ 남한은 어간 '밭-'과 '넓-', 북한은 단어 '여덟'의 겹받침 발음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I (2) 국어와 얼 (나) 국어의 미래 ① 통일 시대의 국어

㉞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질성 회복 방안을 탐구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7.

해설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자음으로 끝나는 말' +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어미·접미사'의 경우 연음이 발생한다. 그러나 '육학년'의 경우, 그 환경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 '자음으로 시작하는 명사'이다. 즉, 'ㄱ, ㄷ, ㅂ, ㅈ'으로 끝나는 말 + 'ㅎ'으로 시작하는 말'의 환경에서 'ㅋ, ㅌ, ㅍ, ㅊ'으로 변하는 경우로 '축약'에 해당된다.

해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여덟'의 받침 '래'과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이', '이야'가 연결되어 연음의 환경이 충족되므로, [여덜비], [여덜비아]로 발음한다.
- ③ '걸'과 조사 '으로'가 연결되어 연음의 환경이 충족되므로, [거트로]로 발음한다.
- ④ '빛'과 조사 '이', '은'이 연결되어 연음의 환경이 충족되므로, [비치], [비춘]으로 발음한다.
- ⑤ '밤낮'이 조사 '으로'와 연결되어 연음의 환경이 충족되므로, [밤나즈로]로 발음한다. '낮일'의 경우에는 '일'이 모음으로 시작되기는 하지만 조사나 어미 등이 아니라 명사이기 때문에 연음의 환경이 충족되지 않아, [난닐]로 발음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8.

해설

[정답찾기]

③의 '퍼서', '꿘다'는 '푸-'라는 원래의 형태에서 모음 '우'가 탈락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유형분석노트]

문제 유형 파악	이 문항은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 유형과 관련하여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줄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

담화 분석 활동	한글 맞춤법 제1항과 이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다룬 자료이다. 소리대로 적는 표기와 어법에 맞게 적는 표기의 두 종류가 있음을 제시하고, 소리대로만 적는 경우 조사나 어미 등과의 결합 환경에 따라 같은 단어가 다르게 표기되는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켜 표기한다는 것이다.
----------	--

유형 해결 전략	① '먹어'와 '먹은'은 [머거]나 [머근]처럼 소리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켰으므로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② '굳이'와 '같이' 역시 [구지], [가치]처럼 소리나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형태를 고정시켰으므로 ㉠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④ '미덥다'와 '우습다'는 어간 '밑-'과 '웃-'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었으므로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⑤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인데, 한자 '老'를 '노'와 '로'로 적는 것은 같은 한자를 다르게 적은 것이므로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볼 수 없다.
----------	--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9.

해설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국어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넘다'의 [넘:]은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이다. 따라서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어서'가 결합되는 '넘어서'의 [넘]은 짧게 발음해야 하며, ㉠의 사례로 적절하다. 그렇지만 '넘치다'는 '넘다'의 피동사나 사동사가 아니다. '넘치다'의 '-치-'는 '강조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넘치다'는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밀려나다.'의 뜻을 지닌다. 실제로 '넘치다'의 [넘:]은 길게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넘치다'는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감다'의 [감:]은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이다.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으니'가 결합한 '감으니'의 [감]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감으니'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또한 '감기다'는 '감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은 피동사이기 때문에 '감기다'의 [감]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감기다'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일다'의 [일:]은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이다.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어'가 결합한 '일어'의 [일]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일어'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또한, '일리다'는 '일다'에 피동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사이기 때문에 '일리다'의 [일]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일리다'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밧다'의 [밧:]은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이다.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아'가 결합한 '밧아'의 [밧]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밧아'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또한 '밧히다'는 '밧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은 피동사이기 때문에 '밧히다'의 [밧]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밧히다'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안다'의 [안:]은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이다.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아'가 결합한 '안아'의 [안]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안아'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또한 '안기다'는 '안다'에 사동 접미사 '-기-'가 붙은 사동사이기 때문에 '안기다'의 [안]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안기다'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20.

해설

올바른 발음 평가

다음은 잘못된 발음 자료를 수집하여 고치는 탐구 활동의 일부이다. 수정 사항이 올바르게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발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발음을 고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발음 오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에서 'ㅅ'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슬]' 대신 '[바출]'로 발음한다.
 → '발음'의 표준 발음은 '[바들]'이며 단순히 연음만 하면 된다.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ㅌ' 뒤에 'ㅣ'나 반모음 'y'가 올 때인데 '발음'은 이것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구개음화를 하면 잘못된 발음이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 'ㅟ'를 단모음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 대신 '[봐:]'로 발음한다.
 → 자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 'ㅟ'는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ㅞ'를 그대로 연음시켜 발음해야 하므로 '[다님]' 대신 '[다뎨]'로 발음한다.
 → '담임'은 '[다뎨]'와 같이 연음시키는 것이 맞다.
- ④ 종성에서는 겹받침이 발음되지 않으므로 '[점:]' 대신 '[점:]'로

해설

발음한다.

→ 국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 발음한다.

⑤ 원칙상 긴소리는 단어의 첫음절에만 나타나므로 '[참말:]' 대신 '[참말]'로 발음한다.

→ 긴소리가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이면 짧게 변한다.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정답표>

1	③	2	③	3	⑤	4	①	5	④
6	③	7	⑤	8	⑤	9	⑤	10	③
11	②	12	①	13	③	14	⑤	15	④
16	⑤	17	②	18	⑤	19	②	20	②
21	⑤	22	①	23	⑤	24	③	25	③
26	②	27	②	28	①	29	④	30	⑤
31	②	32	③	33	⑤	34	②	35	⑤
36	④								
37	㉠ 품사 ㉡ 형태 ㉢ 기능 ㉣ 의미								
38	②	39	⑤	40	⑤	41	③	42	②
43	예시 답안 참조								
44	③	45	③	46	①	47	⑤	48	③
49	⑤	50	⑤	51	①	52	③	53	④
54	③	55	⑤	56	①	57	④	58	⑤
59	②	60	②	61	③	62	④	63	③
64	④	65	③						
66	(1) 현재, (2) 미래, (3) 과거, (4) 현재, (5) 미래								
67	①	68	⑤	69	①	70	①	71	⑤
72	⑤	73	③	74	②	75	④	76	①
77	②	78	⑤	79	⑤	80	②	81	⑤
82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83	⑤	84	②	85	①	86	④	87	⑤
88	③	89	③	90	④	91	④	92	②
93	④	94	⑤	95	⑤	96	④	97	④
98	②	99	③	100	③	101	③	102	②
103	(1) 사회 방언 (2) 지역 방언 (3) 사회 방언 (4) 지역 방언								
104	③	105	①						
106	(1) (가) ㄱ → (나) e, (2) (가) ㄴ → (나) a, (3) (가) ㄷ → (나) b								
107	⑤	108	③	109	③	110	⑤	111	③
112	③	113	①	114	②	115	①	116	③
117	②	118	③	119	②	120	③		